

BUY KOREA BUY BOND  
채권 투자는 KB증권

제3375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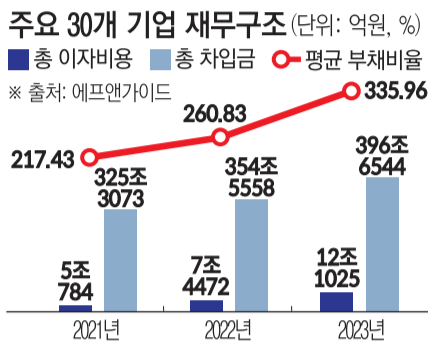
최태원 "반도체 넘뛰기 심화... 캐펙스 집행 숙제" 4 | 금융당국, 이번주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발표 20

코스피(3일 전주 대비) 2676.63 (+20.30P) 코스닥 865.59 (+8.77P)  
환율(달러당 원화) 1362.80 (-12.50원) 금리(국고채 3년물) 3.50% (-0.031%p)

## 기약 없는 금리인하... 기업대출 이자 '쓰나미'

서울 '好好'·지방 '下下'  
백화점 '빈익빈 부익부'

주요 30개社, 재무제표 분석  
2년새 이자비용 7兆 이상 급증  
평균 차입금의존도 29.95% 달해  
효성화학, 부채비율 4935% 최고  
"고금리, 소비·투자 회복 걸림돌"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생산시설 확장,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한 여운돈이 말라가면서 외부에서 빌리는 차입 규모가 늘어난 데다, 고금리로 인해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업들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몇몇 기업은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2021년 2곳에서 지난해 6곳으로 늘어났다.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돌면 한계기업, 이른바 '좀비기업'으로 분류된다.

6일 본지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의뢰해 전자·반도체·자동차·화학·철강 등 산업계 주요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재무제표(연결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이자비용은 총 12조1025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제로(0)' 금리 수준이었던 2021년(5조 784억 원)과 비교하면 2년 새 7조 원 이상 급증한 것이다.



태어난 폭우에 무너진 농심 6일 오전 전남 강진군 도암면 한 귀리밭에서 귀리가 고꾸라져 있다. 강진에는 전날 하루 동안 129.2mm의 비가 내리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5월 하루 강수량을 기록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 동안 평균 100.7mm의 비가 내려 도내 농경지 1539헥타르(ha)에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확기를 앞둔 보리류의 피해 규모는 1278ha로, 농경지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높은 금리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로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꺾이면서 총차입금(총차입부채)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30개 기업의 총차입금은 2021년 325조원에서 2022년 354조 원, 지난해에는 396조 원까지 증가했다. 이 기간 평균 차입금의존도는 28.93% → 28.89% → 29.95%로 높아졌다.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인 부채비율도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 이들 기업의 작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평균 335%로 나타났다.

문제는 금리 인하 기대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는 데 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6회 연속 동결했다. 한국(3.50%)과의 금리 차는 상단 기준 2.00%포인트(p)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도 불확실해졌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벌어질수록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의 자금 유출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1분기 우리 경제가 1.3% '깜짝' 성장하는 등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점도 금리인하 명분을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제약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수출 부문은 전년도 기저효과, 반도체 반등에 힘입어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으나 고금리가 소비와 투자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송영록 기자 syr@

국내 백화점 업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닫혔던 하늘길이 열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수도권 주요 백화점은 연일 매출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반면 지방 소재 백화점은 매출 부진으로 업종을 바꾸거나 폐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마산점 영업을 6월 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32개 롯데백화점 점포 중 매출 최하위권이던 마산점을 매장 임차 종료 시점에 맞춰 결국 문을 닫기로 한 것이다.

주요 대도시 백화점도 매출 부진 상황에서 예외는 아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NC백화점 서면점은 이달 영업종료를 앞두고 있다. 1995년 개점해 30년 가까이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에서 명맥을 유지해온 현대백화점 부산점도 사실상 영업 종료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현대백화점 부산점은 철수 대신 대대적 리뉴얼을 거친 뒤, 9월 새로운 형태의 복합쇼핑몰인 '커넥트현대 부산'으로 재개장한다.

반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주요 백화점은 명품 매장과 각종 팝업스토어 인기 등에 힘입어 연일 매출 신기록을 경

전국서 서울만 10%대 성장률  
지방선 업종 변경·폐점 줄이어

신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이미 지난해 12월 말 백화점 단일 점포 최초로 연매출 3조 원 돌파 신기록을 썼다. 롯데백화점 잠실점도 지난해 2조60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 이번이 없는 한 연매출 3조 원 돌파가 유력하다. 롯데백화점 본점도 지난해 2조 원 가까이 매출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백화점도 여의도 '더현대 서울'이 지난해 오픈 2년 9개월 만에 연매출 1조 원을 돌파, 국내 백화점 중 최단기간 1조 매출 신기록을 세웠다.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백화점 판매액 추이를 보더라도, 지역 간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0년 11조9694억 원이던 서울 백화점 판매액 규모는 3년 만인 지난해 18조6189억 원대까지 급증했다. 조사대상 전국 8개 시도 가운데 서울만 유일하게 10%대 성장률(12.3%)을 기록한 것이다. 서울 외 7개 시도 지역(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경남) 판매액(19조7067억 원)을 모두 합쳐야만 서울 백화점 판매액을 넘길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백화점 시장은 상위 10개 점포 매출이 전체의 45%를 차지한다. 반면 하위 10개 점포 매출은 전체 업계 매출의 3.5% 수준에 불과하다.

백근미 기자 athena3507@

## '개미' 울리는 글로벌 IB... 2112억 규모 불법 공매도

금감원 전수조사 결과 9개社 적발  
잔액 부족 궤 무차입공매도 대부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사례 없어

회사명	위반금액	진행상황	비고
BNP파리바, HSBC	556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완료	2023년 10월 발표
노무라, CS	540	혐의 발견	1월 15일 발표
A, B, C, D, E(미공개)	628		5월 6일 발표
합계	2112		

글로벌 투자은행(IB) 9곳이 2112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벌인 사실이 적발됐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가진 것처럼' 속이는 무차입 공매도를 자행한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노무라와 CS는 위반 규모가 1168억 원으로 확대됐고, 나머지 5개사도 388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앞서 작년 10월 글로벌 IB인 BNP파리바·HSBC(556억 원), 올해 1월 노무라와 크레디트스위스(CS)(540억

원)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목적으로 공매도 규정을 고의로 어긴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외부에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된 처분제한 주식을 대해 반환이 확정된 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 전 매도주문을 제출하거나, 차입을 확정하기 이전에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내부 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하거나, 보유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 입력 과정에

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나기도 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3일 브리핑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불법 공매도라기보다는, 잔액 부족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초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BNP파리바와 HSBC에는 과징금(265억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한 협력 및 국제공조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3월 공매도 토론회에서 제기된 직접전용주문(DMA) 편법활용을 통한 해외 IB의 불법 공매도 의혹과 관련해 "DMA는 주문 전달이 이뤄지는 방식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 저고위-기재부, 서로 “내가 산파”… 저출산 대책 ‘난산’

**세제-예산 두고 부처 기싸움**  
집행권·예산권 없는 저고위에 기재부 “우리가 먼저 사전검토” 내달 발표 지연엔 무산 가능성

상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는 저고위가 기재부 출신인 주 부위원장 취임 이후 적극적으로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상황이다.

이달 발표 예정인 저출산 대책을 놓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기획재정부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 발표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복수의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에 저출산 대책을 저고위가 아닌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저고위 요청에 따라 각 부처가 발굴한 저출산 대응 과제들을 기재부가 먼저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내년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저고위와 기재부 간 갈등은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취임 이후 불거졌다. 법률

2025년	여성 3명 중 1명은 무자녀
2031년	국민 절반이 50세 이상
2033년	초등학교 입학생 반토막
2035년	국내 거주 외국인 10명 중 1명이 노인
2038년	입영대상자 20만명 붕괴
2044년	노동인구 1000만명 증발
2047년	전 국토 소멸위기
2049년	5가구 중 1가구 독거노인
2050년	전국 주택 10채 중 1채 빈집
2050년	노인 1900만명 사상 최대치
2058년	한 명이 다른 한 명 부양하기도 벅차
2060년	사망자 수, 출생아 5배
2061년	국민 5명 중 1명 80세 이상
2065년	대한민국 인구 3000만명

※ 출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년에 보는 대한민국 미래인구 40년

부처별 저출산 대응 과제들을 기재부가 직접 취합해 검토하게 되면 저고위와 기재부가 저출산 대책 관련 세제-예산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해 보인다. 기재부의 사전 검토가 끝난 과제들만 저고위가 넘겨받게 되

다. 애초 저고위는 3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기재부와 세제-예산 협의가 지연되면서 4월로 일정을 미뤘다. 이후 4월 발표도 무산됐다.

이와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을 따져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일·가정이 양립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게 저출생 문제도 해결하고 성장동력도 높이는 큰 과제”라며 “기

존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을 따져 효과가 떨어지는 대책을 떨어내는 노력을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도 담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저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지만, 기재부와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고위는 일반 국민으로부터 과제를 발굴하는 ‘저인민식’ 전략을 펴고 있다. 3월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를 출범하고 정책수요자 자문단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 달부터 현장방문과 포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위원회에 인구정책평가센터도 신설했다.

다만, 저고위가 직접 발굴한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도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통상 기재부는 7월 말 세법 개정안, 8월 말 이듬해 예산안을 발표한다. 8월 이후에는 저출산 대책이 마련되더라도 세제-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내년 추진이 불가하다. 현실적으로 다음 달 말까지 저출산 대책이 확정되지 않으면 발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생산가능인구〉

### 7년 뒤 국민 절반이 쇠살... 20년 후엔 일할 사람 1000만명 증발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보고서

2050년, 인구 40%가 65세 이상  
2060년 사망자 수, 출생아의 5배

저출산·고령화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20년 뒤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약 1000만 명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6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총

인구는 작년 5171만 명에서 2065년 3969만 명으로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는 작년 3657만 명에서 2044년 2717만 명으로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감소는 소비활력을 떨어뜨린다. 소비 활력이 저하되면 경기가 둔화하는 등 내수시장 붕괴 우려가 있다.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중위연령은 작년 기준 45.5세에서 2031년에 50.3세로 오른다. 7년 뒤에는 국민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되는

셈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7세 아동은 지난해 43만 명에서 2033년 22만 명으로 감소한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남성 인구 역시 감소한다. 신규 현역 입영 대상자인 20세 남성은 지난해 26만 명에서 2048년 19만 명으로 줄어든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2050년 1891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 된다는 뜻이다.

65세 이상 1인 가구(독거 노인) 비율은 작년 199만 가구(전체 가구의 9.1%)에서 2049년 465만 가구(20.2%)로 늘어난다.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작년 229만 명(전체 인구의 4.4%)에서 2061년 849만 명(20.3%)으로 증가한다. 국민 5명 중 1명이 80세 이상이 되는 것이다.

고령화가 지속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생산가능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진다. 이 같은 악순환이 지속하면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하는 등 장기 저성장국이 굳어

진다.

2050년 전국적으로 300만 호 이상의 빈집이 발생하면서 10채 중 1채가 빈집이 된다. 사망자는 2060년 74만6000명으로 출생아(15만6000명)의 약 5배가 된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재앙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사안”이라며 “인구 회복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우리 사회가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기능을 전환, ‘인구부’로 확대·개편 움직임이 보인다.

송석주 기자 ssp@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체권 매입펀드
- 소상공민 경영담자 대출발기금

잠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혁신펀드
- 기업구조혁신지원펀드(온기업)
- 경로 선택금융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http://www.kamco.or.kr) 문의 1588-3570

# 하루 이자만 수십억... '고금리 직격탄' 대기업 쓰러질 판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이중고를 겪었다. 반도체 업황 하락으로 수조 원의 적자를 낸 데다, 앞선 데 달린 격으로 이자비용은 급증했다. SK그룹 고위 관계자는 "2%대였던 금리가 3배 넘게 치솟으면서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었다"며 "반도체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업종이라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이자비용으로 1조4683억 원을 냈다. 2년 전 2600억 원에서 465%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 같은 기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7조7000억 원, 9조1300억 원에 달했다.

6일 본지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의뢰해 전자·반도체·자동차·화학·철강 등 산업계 주요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연결기준)를 분석한 결과, 변동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이른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곳에서 지난해 4곳, 올해는 6곳으로 최근 3년간 매년 두 곳씩 늘었다. 올해는 SK하이닉스(-5.26), LG디스플레이(-3.47), SK(-1.40), 효성화학(-1.09), 롯데케미칼(-0.92), 포스코퓨처엠(0.71)이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으로 나타났다. 특히 LG디스플레이,

대기업 대출금리 천정부지 치솟아 지난해 5.21%... 10년래 최고 SK하이닉스 이자비용 1조4683억 2년 전 2600억서 465% '썩썩'

변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6곳 2년 연속 '1미만' 기업 3곳이나

효성화학, 롯데케미칼은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에 못 미치며 '썩비기업' 코앞까지 몰렸다.

국내 대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이 악화한 이유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크게 줄어든 반면, 고금리로 이자비용은 늘어난 탓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대기업 대출 금리는 2020년 연 2.84%에서 2023년 연 5.21%로 상승했다.

이자비용이 크게 증가한 대표적인 기업은 SK하이닉스다. 이 회사의 이자비용은 2021년 2600억 원에서 이듬해 5331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조4683억 원으로 급증했다. 고금리로 인해 가만히 있어도 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단위: 배) ※ 출처: 에프앤가이드

2021년	2022년	2023년
아시아나항공 0.28	LG디스플레이 -5.03	LG디스플레이 -3.47
삼성중공업 -9.71	삼성중공업 -8.57	SK하이닉스 -5.26
	효성화학 -3.33	포스코퓨처엠 0.71
	롯데케미칼 -5.09	효성화학 -1.09
		롯데케미칼 -0.92
		SKC -1.4

가는 돈이 1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매일 이자상환에만 40억 원을 쏟아부은 셈이다. 업종별로 보면 석유화학과 배터리 업계의 이자비용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배터리 기업 SK온을 자회사로 둔 석유화학 기업 SK이노베이션은 이자비용이 2021년 3938억 원에서 지난해 1조1440억 원으로 190% 급증했다. SK 계열사인 SKC 역시 599억 원에서 1544억 원으로 158% 증가했다. 이 밖에 LG화학(6472억 원,

206% ↑), LG에너지솔루션(3158억 원, 371% ↑), 롯데케미칼(3789억 원, 344% ↑), 삼성SDI(2736억 원, 378% ↑), 효성화학(1731억 원, 406% ↑)도 이자비용이 급증했다. 국내 대표 전자 기업인 삼성전자와 LG 전자도 피해갈 수 없었다. 이들 기업은 이자비용이 2021년 각각 4315억 원, 2391억 원에서 지난해 9303억 원, 5721억 원으로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5000억 원, LG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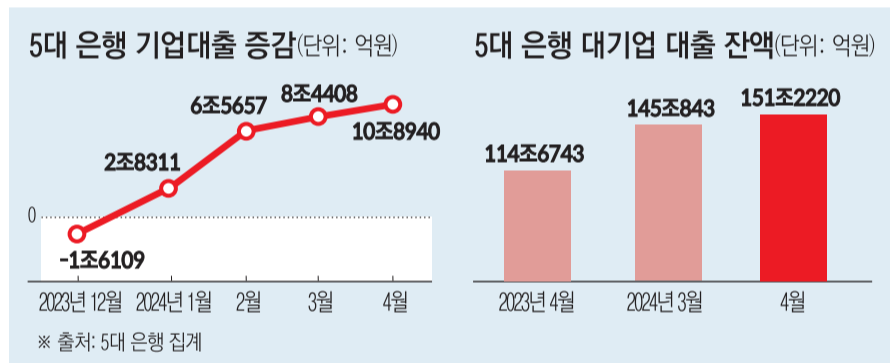
자는 3000억 원가량 불어난 금액이다.

이처럼 고금리와 경영 불확실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주 6일 근무는 물론이고 각종 비용 절감에 나서는 등 위기 경영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재계 1위 삼성그룹은 임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근무하기 시작했다. SK그룹도 주 5일제 근무를 도입한 지 24년 만에 '토요 사장단 회의'를 부활시켰다. LG그룹은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이자보수한도를 줄이며 비용 절감에 나섰다. 한화는 출장과 전시회 참여 등 소모성 경비를 30%가량 줄였다. 포스코는 임원 급여를 최대 20%까지 반납하고 주식보상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올해 1분기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고 해도 전쟁과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고금리와 고환율 등 경영 환경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소가 즐비하다"며 "당분간은 마른 수건을 짜는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김민서 기자 viajepro@lune@



## 가계대출 옥죄자 '기업'에 눈돌린 은행 고금리·경기 악화에 연체율 급등 비상

지난달 기업대출 10조원 이상 늘어 연체율 0.35%... 1년새 0.05%p ↑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이 10조 원 이상 불어났다. 이 중 대기업이 빌린 돈만 6조 원이 넘는다. 은행들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방위 영업을 한 데다 회사채 시장 여건이 악화되면서 은행에서 돈을 융통한 대기업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업대출은 796조456억 원으로 전월 대비 10조8940억 원 급증했다. 5대 은행의 기업대출이 10조 원 넘게 늘어난 건 최근 2년 새 처음이다. 올해 들어(1~4월) 5대 은행에서 나간 대기업 대출만 28조7316억 원에 달한다.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기업대출로 영업 전략을 바꾸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은행들의 타깃은 주로 대기업이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대기업 대출 잔액은 151조2220억 원으로 전월보다 6조1137억 원 늘었다. 증가 폭 기준 전월(3조2753억 원)의 2배 가까이 된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644조8236억 원)은 4조7563억

원으로 대기업 대출보다 적었다.

문제는 경기 악화와 고금리 등으로 한 대기업이 늘면서 기업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5대 은행의 올해 1분기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35%로 전분기 말에 비해 0.04%포인트(p) 올랐다. 지난해 1분기 말 0.30%와 비교하면 0.05%p나 뛴 수치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0.41%로 전년 동기 보다 0.07%p 상승했고 대기업은 0.04%p 올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경기 침체 속 고금리로 치솟은 이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대기업 대출 금리는 연 5.21%에 달했다.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달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이 잠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얘기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 등 내수시장 침체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리스크 평가 지표들의 추가 악화 여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세상이 복잡할 수록 보험은 하나로 OK 합시다

우체국 하나로 OK 건강종신보험 2402 무배당

출발 Start → 도착 Finish

**든든해서 OK**

건강, 상해, 3대 질병(암, 뇌, 심장) 및 유족보장까지 하나로

**실속있어 OK**

내게 꼭 필요한 보장을 골라 맞춤형으로 가입 가능

**부담없어 OK**

부담 없는 보험료로 보장

관련 특약 가입시

**가입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고지의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체신면서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청약서 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 해지 후 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거절 또는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해 지급이 보장됩니다. • 갱신 계약의 보험료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나이의 증가, 적용기준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보험 홈페이지 [www.epostlife.go.kr](http://www.epostlife.go.kr), 모바일웹 [m.epostlife.go.kr](http://m.epostlife.go.kr) 또는 가까운 우체국(우체국FC)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1599-0100, 우체국보험 다이렉트 ☎070-5074-4560 • 승인번호 00-240229-777-P400061(2024.2.29.~2025.2.28.)

〈CAPEX:자본적 지출〉

# 최태원 “반도체 널뛰기 심화… ‘캐펙스’ 집행 업계의 숙제”

## 대한상의 회장 기자간담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롤러코스터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본적 지출(캐펙스·CAPEX)을 얼마나 더 투자하고 얼마나 더 잘 갈 거냐하는 것은 아직도 업계에 남아있는 숙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작년에 (반도체 업황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좋아진 현상도 그리 오래 안 간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회복으로 적자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업턴(상승 국면)이 왔다고 안도할 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해 7월 기자간담회에서도 반도체 시장에 관해 “업다운 사이클이 빨라질 뿐 아니라 진폭 자체가 커지는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다”며 “그래서 널뛰기가 훨씬 심해지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7조 원이 넘는 적자에서 탈출해 올해 1분기에는 연결 기준 영업이익 2조8860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해 적자가 15조 원에 달했지만, 올해 1분기 1조9100억 원의 이익을 내며 5분기만에 반도체 사업이 흑자로 돌아섰다.

최 회장은 “반도체 미세화가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미세화 과정 수율을 충족시키려고 생각하고, 공급을 늘리려면 라인을 더 건설하고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며 “그러다 보니 기술로 해결이 안 되고 캐펙스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계속 부딪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부 자기 돈으로만 계속 투자하는 형태가 잘 안 나오니까 전 세계 다른 곳에서도 반도체 생산을 자기네 나라로 끌고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보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캐펙스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조금이 해외 투자의 직접적인 유인책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솔직히 보조금이 많은 것은 시스템이 안 돼 있거나 인건비가 싸다거나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시스템은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답했다. 젠스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의 만남에 관해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반도체·배터리 산업 전망은

반도체 산업 회복, 오래 안 가  
미세화 관건… HBM 조기 양산  
효율 추구 배터리, 결국 돌아와

“오랫동안 본 사람이고, 모여서 같이 인사하고 밥 먹고 나오다 보니 회사 연감에 사인해서 주더라”며 “자기네 제품이 빨라나 오게 우리 연구개발(R&D)을 빨리 서두르라는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를 찾아 황 CEO와 함께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바 있다.

현재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필수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쥔 SK하이닉스는 같은 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공급 예정이던 HBM3E 12단 제품의 양산을 올해 3분기로 앞당기고, 6세대인 HBM4도 2026년에서 내년으로 1년 앞당겨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배터리 업황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 대한상의 회장직 연임, 과제는

국민·사회 기여하는 재계 매진  
‘반기업 정서’ 개선 이바지할 것  
22대 국회, 저성장문제 고민을

로 그동안 들어왔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후 변화 등이 퇴조되고, 경제적으로 더 효과가 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하지만 이 트렌드도 오래 가지 않을 것이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전기차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을 일으키니까 배터리, 그 밑에 있는 소재도 똑같은 공급망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전기차를 영원히 안 하고 없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니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SK그룹의 사업 재편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SK그룹은 현재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SK온

### 美·중과 협력 관계 방향성

美선거 결과에 일희일비 말고  
꾸준히 대화하며 숙제 풀어야  
중국과 합리적 관계 구축 절실

의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그룹 내 사업을 점검하고 최적화하는 ‘리밸런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부터 대한상의를 이끈 최 회장은 올해 3월 대한상의 25대 회장으로 추대되면서 2027년 3월까지 3년간 회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그는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일에 더 매진해서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기를 기대한다”며 “1기에서는 소통과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등을 실험적으로 테스트하는 성격이 있었다면 올해는 더 집중해서 국민이 바라는 형태의 경제계가 되고 가능한 한 사회에 많이 기여하는 경제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고 싶다고 했다. 최 회장

은 “반기업 정서를 개선해 ‘나도 경제 활동을 할 거야, 기업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나게 열심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며 “제가 어디까지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가운데 최 회장은 “지금 저성장의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모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며 “과거 기조대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이 괜찮은 겁니까”라는 질문을 전 사회에 해보아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그는 “여태까지 하던 방법론은 효과가 있었던 게 별로 없었고, 지금 있는 커다란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내가 뭘 하겠다”고 생각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보면 비용은 상관없이 무조건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떤 임팩트를 주는지는 별로 생각을 안 할 때가 많다”며 “더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접근법을 갖고 아무리 급해 보이는 일 같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같이 생각해서 포용적이고 합리적인 형태의 법과 규제 형태를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미칠 영향에 관해서는 “선거를 하다 보면 누군가 증폭된 메시지를 내게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꾸준히 미국과의 대화를 가져가면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나 장기적으로 같이 협력해야 할 문제들을 잘 끌고 가는 게 제일 좋은 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수출도 해야 하고 경제협력을 많이 해야 하는 입장에서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고객이고 판매처이고 협력처”라며 “경제 문제를 풀 때는 차가운 이성과 계산으로 합리적인 관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CCIEE)와 함께 ‘한중 고위급 경제인 대화’를 연다. 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과 정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1.5트랙 대화 플랫폼’이다. 최근 최 회장은 중국을 찾아 대화 의제 설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경제적 바탕이나 모델을 갖고 있지 않다”며 “상호 호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 추가 집단행동·선별적 대화 예고… 여론으로부터 고립되는 의협

### 복지부장·차관 파면 요구 대통령과 일대일 대화 고수 일부 언론사 출입정지 논란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킨 대한의사회(의협)가 추가적인 집단행동과 ‘선별적 대화’를 예고해 여론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이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사진) 신임 의협 회장은 취임 첫날인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과 환자가 걱정하지 않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를 향한 메시지

는 ‘대화’와 거리가 멀다.

임 회장은 2일 취임식에서 “2차 병원이나 개원의는 (휴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나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다”며 추가 집단행동을 경고했다.

대화 조건으로는 당선자 시절부터 요구해온 보건복지부 장관·차관 파면과 교육부장관·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경질, 대통령 사과,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고 있다. 통상 2명을 선임하던 변호사 출신 법제사는 4명으로 늘렸다. 전반적으로 대화보다



투쟁에 무게를 둔 행보로 해석된다. 요구하는 소통 형식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일대일 대화다. 의대 증원의 ‘주범’인 복지부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언론에 대해서도 선별이 나섰다. 의협은 지도부 교체 후 일부 언론사를 자의적으로 ‘출입정지’ 조치하고, 브리핑에서는 정부 편에서 의대 증원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지난해까지 의협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언론사들과 제한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올해 들

어 의대 증원 여론이 정부에 우호적으로 변화하자 언론과 접촉을 늘렸다. 하지만 지도부 교체 이후에는 다시 과거 행태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전공의 끌어안기’에 골몰하고 있다. 의협의 중심세력인 개원의들은 경영 문제로 집단행동을 벌이기 어렵지 않고, 집단행동에 나선다고 해도 ‘대체제’가 많아 파급력이 작다. 반면, 전공의는 경영 문제에서 자유롭고, 대다수가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돼 집단행동의 파급력이 크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술·진료 지연·취소와 일부 상급종합·중합병원 교수들의 휴진도 전공의 집

단행동에 기인한 것이다.

의협은 3일 전공의 부모 1명으로부터 응원 화환이 배달된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화환은 수령증 없이 보내져 어느 학부모가 보냈는지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면서도 “임 회장 취임 이후 2일 초도 상임이사 회에서부터 ‘전공의 지원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만큼, 전공의 학부모로부터 받은 격려 화환은 회의업무 추진에 전군민마와 같은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42대 임현택 회장과 집행부는 전공의 회원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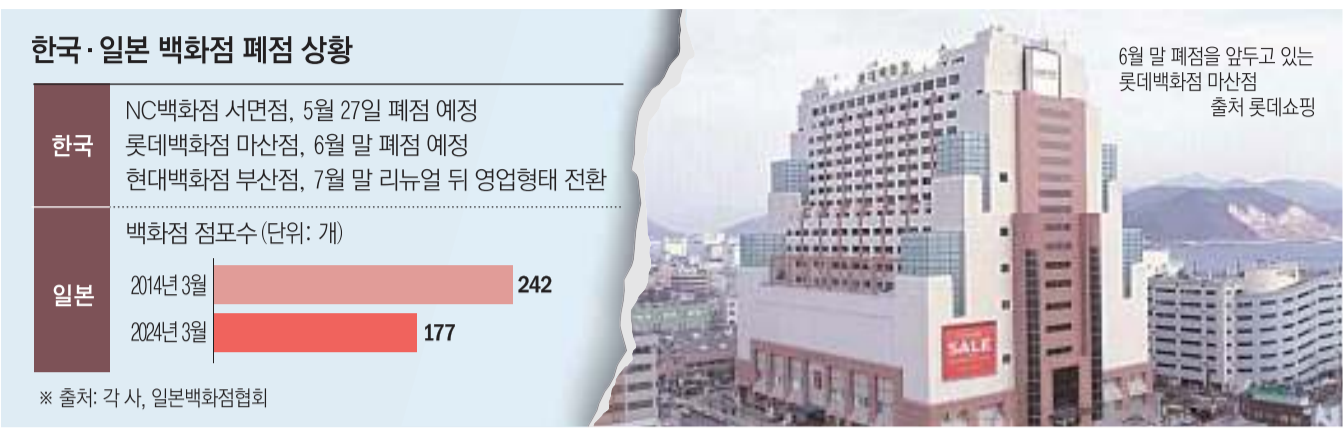
# 소비 침체에 무너진 '백화점 왕국' 日... "한국도 남일 아냐"

日, 백화점 점포 10년새 27% ↓  
매출액은 25% 줄어 5109억엔  
일각선 "트렌드 못 따라가 쇠퇴"  
전문가 "불황 땐 유통산업 직격탄  
韓·日뿐만 아니라 美도 사양화"

국내 지역 백화점의 부진은 인구 감소와 소비 침체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은 한때 '백화점 왕국'으로 불렸으나, 소비침체로 인해 수년 전부터 백화점 산업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일본 백화점업계 역시 MZ세대를 겨냥해 특화 점포를 내세우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6일 일본백화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일본 백화점 점포 수는 177개로 10년 전인 2014년 3월 대비 26.9% 감소했다. 2010년 261개를 시작으로 매년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일본 백화점 점포 수는 전년 대비 5.8% 줄어드는 등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점포 수가 줄면서 일본 백화점의 총매



출도 급감했다. 10년 전인 2014년 3월, 약 6818억엔(6조247억 원)이던 일본 백화점 총 매출은 올해 3월, 약 5109억엔(4조5164억 원)으로 25% 감소했다.

폐점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 혼슈 시마네현 마쓰에시에 있는 이치바타 백화점은 올해 1월 문을 닫았다. 1958년 개점한 이치바타 백화점은 시마네현 유일 백화점으로 65년간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올해 사업을 접으면서 시마네현은 야마가타, 도쿠시마에 이어 일본에서 '백화점이 없는 세 번째' 현(縣)이 되고 말았다.

앞서 작년 1월 일본의 수도 도쿄 중심가인 시부야의 명소로 꼽히던 도큐백화점 본점도 문을 닫았다. 1967년 11월 문

을 연 도큐백화점 본점은 그간 패션과 문화를 선도하는 일본 대표 백화점으로 이름을 날렸으나, 반세기 만에 폐점했다. 같은 해 홋카이도 오비히로시 후지마루 백화점도 122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폐점했다. 2020년에는 창업 320년 역사를 가진 혼슈 야마가타현 오누마 백화점도 문을 닫았고, 세이부백화점 이케부쿠로 본점도 최근 폐점했다. 이 밖에 도쿄 신주쿠의 오다큐백화점도 매장을 축소·이전했다.

일본에서 백화점 산업이 몰락하고 있는 결정적 배경은 '소비 침체'다. 1980~1990년대 일본 백화점은 중산층의 나들이 장소로 꼽혔다. 하지만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버블경제로 인해 일본 백화점은 침체에 빠졌다. 여기에 인구 감소, 코로나19 팬데믹 등이 오프라인 소비시장을 더 빠르게 위축시켰다.

업계 일각에서는 일본 백화점들이 변화하는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우리

나라 백화점은 편집숍, 패스트 패션, 온라인몰 운영 등 소비자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한 반면 일본의 백화점은 시장 우위 유지를 위한 변화 대응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고객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불황을 가장 큰 백화점 쇠락의 원인으로 꼽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불황이 오면 유통 분야가 직격탄을 맞는데, 그와 동시에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진다"며 "백화점은 중·고가 제품 위주로 팔고 인건비에 따른 서비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불황으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고객은 자연스럽게 백화점 소비를 줄이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한때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백화점과 면세점의 큰손이었지만, 최근 중국 방문객도 줄고 내수 경기가 좋지 못해, 한국 백화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는 비단 한국,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백화점도 사양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 "위기 처한 지역점포 차별화 콘텐츠 시급"

### 전문가 제언

'쇼핑패턴 변화' 양극화 주요인  
매장 대형화·지역 특색 살려  
생존 위해 부지런히 변화해야

국내 백화점업계는 위기에 처한 지역 점포의 실적 개선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 롯데백화점 운영사인 롯데쇼핑은 3월 주주들에게 공개한 영업보고서를 통해 백화점비 효율 점포 리포지셔닝(재조정) 검토를 공식화했다. 실적 부진 매장은 폐점뿐 아니라 체질 개선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국 실적이 저조한 지역 점포들부터 순차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소리다.

이런 노력이 궁극적인 해법이 될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온·오프라인 쇼핑의 경계가 무너진 시장 상황과 고령화 가속화, 경기악화에 따른 소비침체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린 탓이다. 여기다 수도권 인구 집중화, 지역 인구 절벽 등은 업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국내 소비자의 쇼핑 패턴 변화에 업계가 민감하게 대응하고, 지역색을 담을 수 있는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일 한국유통학회(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내 백화점 양극화의 주요 요인으로 '쇼핑패턴의 변화'를 꼽았다. 이 회장은 "지역 백화점만 해도, 지역 내 규모가 큰 백화점으로 소비자들이 쏠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쟁

력이 떨어지는 백화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 백화점의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역 백화점 대부분이 상품을 진열하는 쇼룸 기능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백화점 매출 개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확실한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콘텐츠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백화점 대형화와 지역 특색을 살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특색 없는 중소 규모 백화점은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면서 "기존 백화점들도 지역 맛집을 유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색에 맞는 매장으로 구성해 차별화된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과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던 일본 백화점들도 여성이나 10대, 20대 등으로 고객군을 차별화하면서 해답을 찾았다"며 "국내 백화점들도 VIP 고객 마케팅이나 식음료(F&B) 등으로 차별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점포 수가 많다고 모두 수익성이 좋은 게 아닌 만큼, 대형 점포 위주로 재편해 효율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차별화한 상품 구성, 지역 고객 맞춤형 관리 등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역 백화점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문현호 기자 m2h@

##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짝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펜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진 피부 나이

- 10.6% 볼 탄력 개선
-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 12.2% 피부 탄력증 개선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펜' 채널 판매처 | 전국 아리따움 및 올리브영 매장  
\*사용 7일 후, 인체 적용 시험 결과(시험기간: 2023.01.25~2023.03.10) (시험대상) 성인 여성 30명 (시험기관) (주)글로벌리얼리서치

# 살 곳 없고 低임금... 빛 잃은 '선진국 이민형 성장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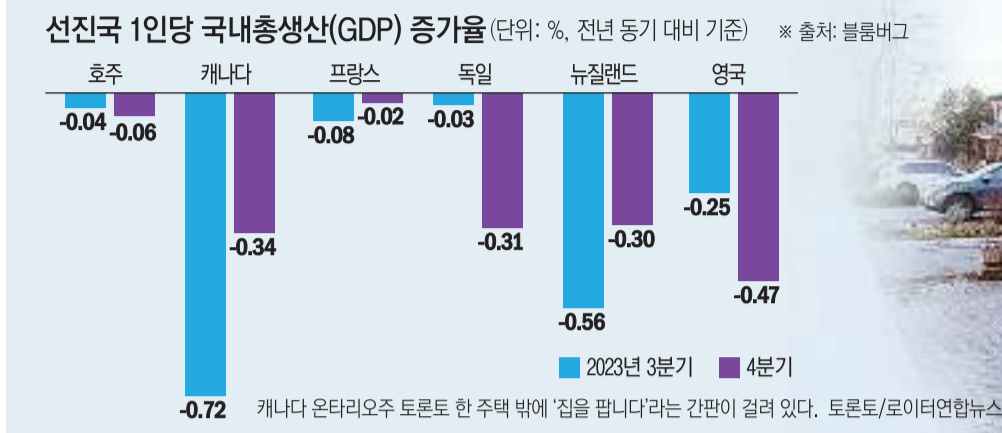
## 加·호주 등 '이민 정책' 한계

이민 유입통해 경제성장 이뤘지만 심각한 주택부족·생활비 부담 타격 13개국 1인당 GDP 마이너스 성장 일부 국가, 이민자 유입 제한하기도

선진국들의 '이민형 경제 성장 모델'이 주택 부족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말 13개 선진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경기 침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이민자 유입이 한 국가의 흡수 능력을 초과하면서 개개인의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 특히 만성적 주택 부족이 이민자 유입을 통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키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수십년간 이민자들의 급속한 유입 속에서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 인구통계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이뤘다.



호주에서는 2022년 6월 이후 인구의 3.7%에 해당하는 100만여 명의 이민자가 유입돼 서비스업, 노인 돌봄,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줬다. 영국에서는 우크라이나, 홍콩 등에서 온 이민자가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이후 부족한 인력을 보충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성장 모델이 삐걱거리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기침체에서 벗어났지만 1인당 생활 수준이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영국의 경기침체는 수치상으로 알아 보았지

만 1인당 기준으로 측정하면 많이 심각한 상황이다.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4분기 0.3% 역성장했는데, 1인당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6%에 달했다.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도 1인당 GDP 기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기술적 경기침체에 빠졌다.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직으로의 전환, 신규 이민자의 낮은 소득 등 다른 요인들이 있지만 주택 부족과 그에 따른 생활비 부담이 공통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캐나다에서는 지난해 생산가능연령 인구가 100만 명 증가했지만, 신규 일자리

는 32만4000개 만들어지는데 그쳤다. 그 결과 실업률이 1%포인트(p) 이상 상승했고, 청년층과 신규 이민자들은 높은 임대료, 낮은 임금, 제한된 취업 기회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청년층은 소비를 줄이게 됐으며, 기업의 자본 투자 부족은 생산성 저하를 불러일으켰다. 호주의 1인당 GDP 역시 2년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 부족 및 치솟는 임대료로 사회 불만이 커졌다.

스티븐 할마릭 호주커먼웰스은행(CB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민자 유

입이 호주에 긍정적이라는 것은 수년에 걸쳐 입증됐다"며 "하지만 단기적으로 임대료와 집값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일부 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은 인플레이션 고착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 부족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부 국가는 이민자 유입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올해 처음으로 '임시 거주자(영주권 받기 전 단계의 입국자)' 증가에 제한을 뒀다. 호주는 학생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변호선 기자 hsbun@



## "국내보다 비싼 상품 있다고?"... 알리에 뒤통수 맞았네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1000억 페스타' 등 초저가 마케팅을 앞세워 국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지만, 일부 생활필수품은 알리보다 국내 이커머스가 더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알리에서 판매하는 일부 상품은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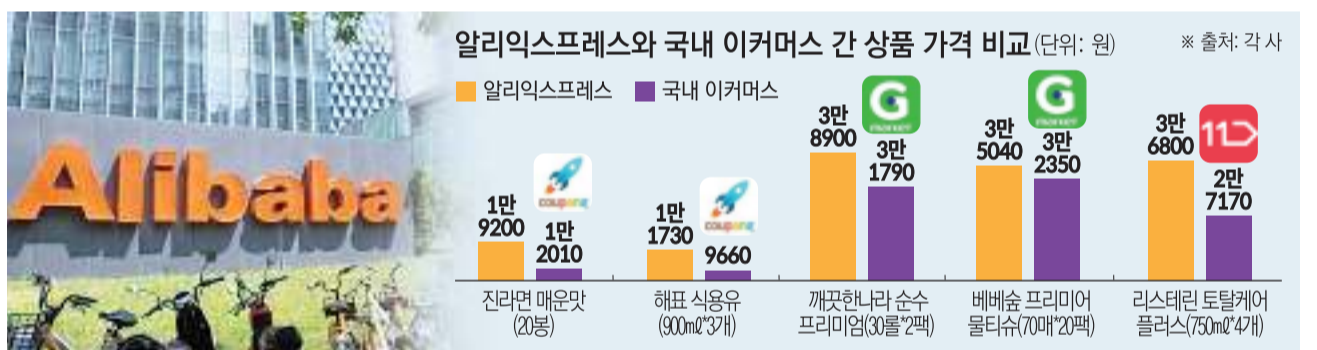
6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라면, 시리얼, 휴지 등 한국소비자원이 지정한 생필품 30개 품목 중 일부 상품은 알리의 'K베뉴(K-venue)' 판매가격이 국내 이커머스보다 비쌌다. K베뉴는 한국 상품만을 모아 놓은 알리의 전문관으로, 국내 판매자가 알리에 입점해 식품, 생활용품, 리빙, 패션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이다.

일례로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20봉)은 알리에서 1만9200원에 판매 중이다. 반면 쿠팡 로켓배송 판매가는 1

만2010원이다. 상품 대부분을 직매입해 판매하는 쿠팡이 알리보다 약 7000원 저렴했다.

또 켈로그 '콘푸로스트'(600g) 3개의 알리 판매가는 1만3390원, '코카콜라 오리지널 무라벨'(370ml) 24개 상품 가격은 2만1760원으로 쿠팡보다 각각 470원, 1800원 비쌌다. 이외에 해표 식용유(900ml) 3개 묶음은 알리(1만1730원)가 쿠팡보다 2000원가량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알리 K베뉴 판매가격은 동일한 오픈마켓(상품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



해주는 온라인 장터) 형태인 국내 기업 G마켓, 11번가와 비교해도 가격이 비쌌다. 알리에서 판매 중인 '베베슈 프리미엄어 물티슈'(70매) 20팩의 가격은 3만5040원으로, G마켓보다 약 2700원 비쌌다. '리스테린 토탈케어 플러스'(750ml) 4개 묶음(3만6800원) 역시 알리가 11번가의 같은 상품보다 9600원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가전·디지털 제품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LG '그램 노트북 14ZD90S-GX56K'는 G마켓 가격이 알리보다

10만 원 저렴했다. 뱅앤올룹슨 '베오 플레이 포털 그레이 프리미엄 블루투스 게이밍 헤드폰'도 G마켓이 알리보다 2만6000원 저렴했다.

업계는 알리가 '1000억 페스타'라는 초저가 마케팅을 활용해 국내 소비자를 현혹하는 마케팅 전략을 내세웠다고 본다. K베뉴에서 판매 중인 상품 중 알리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상품 품목 이상대적으로 적고, 특정시간대 공개되는 초저가 상품은 실제 구매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알리가) 높은 할인율로 특정 시간에만 구매할 수 있는 타임딜 상품을 내세워 다른 상품까지 연계 구매하도록 유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알리 등에서 판매한 일부 상품에서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알리,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38종에서 카드뮴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유승호 기자 peter@

## 사기범 '코인 지갑' 되살렸더니... 검찰, 숨겨진 가상자산 76억원 찾았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은닉된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50·남) 씨는 2019년 1~2월께 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상장되고, 해당 코인을 사용한 게임이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해 6월 A 씨는 이더리움 1796개를 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등 배임 혐의도 있다. 지

난해 7월 1심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배임 역시 유죄로 판단, 올해 1월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A 씨가 이더리움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후 비밀복구 구문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종전 추징 선고가 확정되면 A 씨가 약 23억 원 상당의 이익

범죄수익금 1796개 이더리움 檢, 대법원에 몰수 선고 요청 보관 가상자산 압류 첫 사례 "범죄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

을 본다. 이유에서다. 2심 선고 당시 이더리움 시가는 약 53억 원이었다. 하지만 시세변동으로 현재 약 76억 원으로 가액이 상승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박탈하려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대법원에 발견된 이더리움 1796개에 대해 몰수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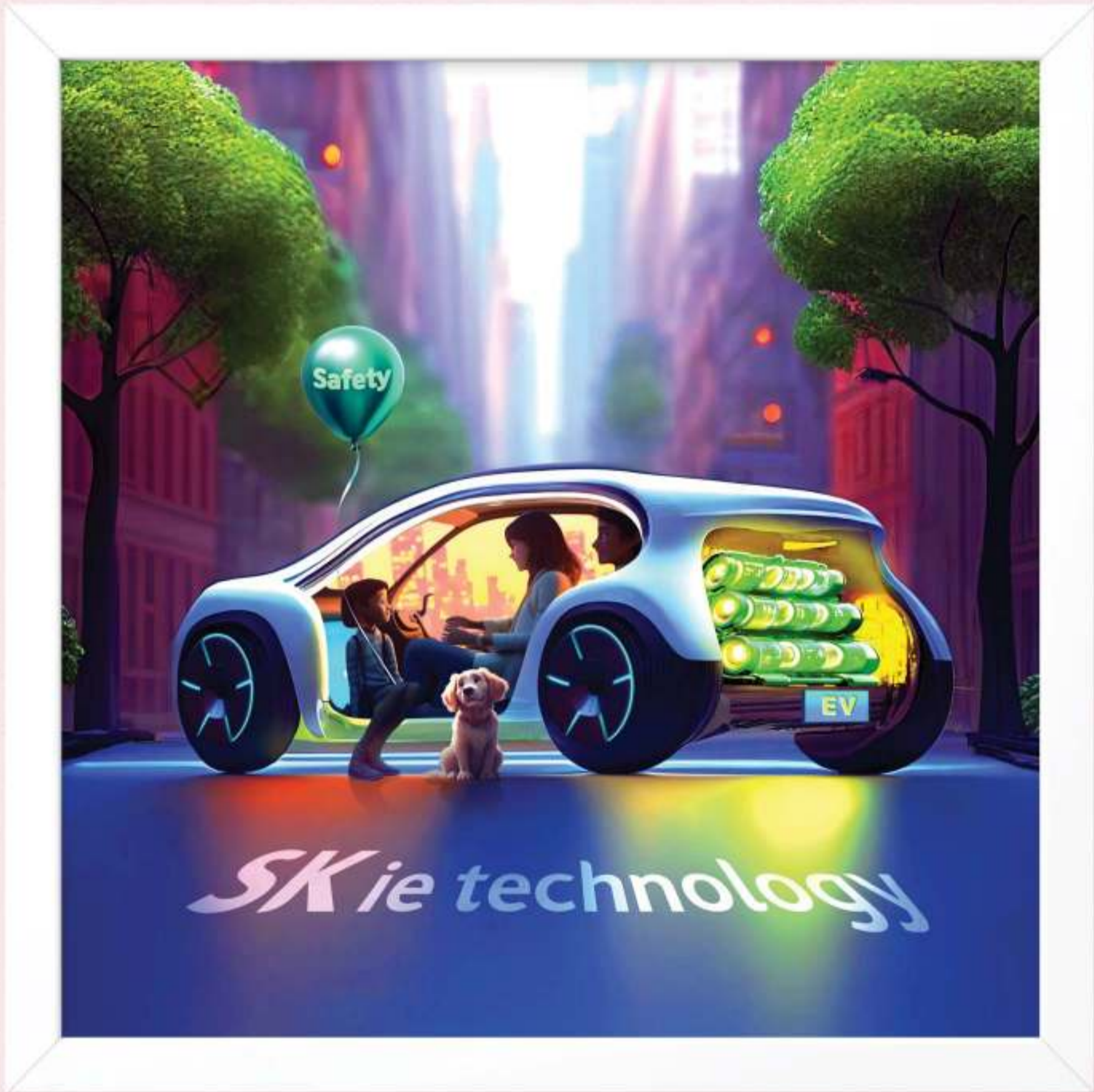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사기 피고인의 개인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돼 있던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환부 절차를 개시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가 니모닉코드를 숨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알아낼 수 없어 이더리움 몰수가 어렵다고 보고 판결 당시 시가만큼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에게서 압수한 물품들을 모두 재검토해 니모닉코드를 알아냈다.

또 전자지갑에 연결된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수동으로 복구를 거듭한 끝에 지갑 내부의 여덟 번째 계정에 숨겨진 이더리움을 확인했다. 송석주 기자 ssp@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ie technology**



[ 이 작품은 다음 키워드를 기반으로 SK이노베이션과 시가 함께 그린픽처입니다 ]  
 #전기차 부품 핵심 기술 #배터리분리막 #안전함 #세계를 움직이는

작품명 **안전한 기술이 타고 있어요**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CES\* 혁신상 수상에 빛나는 배터리 분리막 기술력이  
 전 세계 전기차를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CES (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그린픽처**

# 지지율 어찌할꼬... 尹 1년9개월 만에 기자회견

## 9일 취임 2주년 변곡점 되나

### 4주 연속 30%대 초반 못 벗어나 “남은 3년 국정계획 말씀드릴 것” 채상병 특검법 거부 이유 밝힐듯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10 총선 이후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4주 연속 30%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지난달 말 영수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지지율 반등을 이뤄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면서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 국정 운영 기조와 상황을 설명하고, 앞

으로 3년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그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를 전하고, 남은 임기의 비전과 각오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은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된다.

미흡한 소통 이미지를 벗고, 경제 및 물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여 지지율을 밀어 올릴 변곡점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4월 29일~5월 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 실시한 5월 첫 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30.3%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65.5%다. ‘잘 모름’은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3%였다. (이번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직전인 4월 1주차 37.3%를 기록했다. 이후 △(4월 2주차) 32.6% △(4월 3주차) 32.3% △(4월 4주차) 30.2%로 3주 연속 하락하다가 이날 0.1%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전주 66.9%까지 3주 연속 오르다가 이날 1.4%포인트 하락했다.

지지율이 4주째 30% 초반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가져올 효과에 시선이 모인다. 윤 대통령의 5월 첫 주 지지율은 전주(30.2%)와 비슷한 수치다. 특히 30.2%는 2022년 8월 1주차(29.3%)에 기록한 최저치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에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보통의 이미지를

해소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릴 계기가 될 수 있게 하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경제 및 물가, 채상병 특검법, 민정수석실 신설, 의료개혁 등 입장을 밝힐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실이 거부권 가능성을 이미 시사한 만큼 법리상 문제점을 설명하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르면 7일 발표할 민정수석실 신설 관련 조직개편 내용 역시 기자회견에서 그 배경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정수석실 신설은 조직 슬림화라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는 논란 가능성이 있는 데다 사정 기관 장악이라는 우려도 함께 낳고 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박찬대 “운영위·법사위원장직 반드시 확보” 강공... 역대 국회선 달랐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 운영위원장 與 원내대표 뭉 관행 법사위 19대 국회까지 野 맡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출마 기자회견과 투표 전 정견발표에서 이미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던 그는 6일 진행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졌다. 그런데 운영위와 법사위를 양보하다 보니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결국 방법은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밖에 없었다”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갈등 끝에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의 움직임에도 국민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되는 의사결정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해 기동대처럼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생과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운영위와 법사위는 국회 내 17개의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운영위는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을 담당한다. 법사위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 소관 사항을 비롯해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대통령실을 견제할 수 있는 운영위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것이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산하 수석비서관들을 대상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질의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상임위 법안들을 본회의로 올려보내는 핵심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 맡아 왔다.

운영위의 경우 김대중 정부 시절인 16대 국회부터 윤석열 정부의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집권 여당 소속 의원들이 맡아 왔다. 반면 법사위원장은 야당 의원이 맡는 관례가 19대

국회까지 이어지다 20대 국회 들어 관행이 깨졌다.

22대 국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두 관행이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외한 8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여당 소속 의원들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이원 기자 iwonsoe96@

# Dexcom G6

## 고혈당을 실시간으로, 저혈당을 사전에 알려주는

### 연속혈당측정시스템 **덱스콤 G6**

- ✔ 고혈당, 저혈당 알림과 경고!
- ✔ 손가락채혈(BG)을 통한 보정이 필수적이지 않음
- ✔ 혈당값을 5분마다, 하루 288번 스마트장치로 전송
- ✔ 최대 5명까지 연속 당수치 공유 가능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실구매가 100% 지원

개인용내연속혈당측정시스템/24개월 이상의 당뇨병 환자의 피부 표면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세포 간질액에서 측정된 포도당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포도당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장치로 자가검사용으로 집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내 당뇨병 환자의 포도당 농도측정 결과 수집을 위해 사용한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12021-010-18-0031 (유효기간 24.11.12)

**N** **덱스콤 G6**

# 이르면 다음주 재정전략회의… ‘R&D 예타’ 손볼까

尹정부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  
내년 예산안·재정 방향 등 다뤄  
AI 등 첨단 R&D 예타 폐지 논의  
필수외로 특별회계 신설도 안전  
예산 빠듯해 정책 우선순위 정해야

이르면 내주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저출산, 민생토론회 제시 과제 관련 대응 예산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성을 따라 예산안이 편성된다. 윤석열 정부에 선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다. 당초 이번 주 개최가 점쳐졌지만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추진되면서 순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작년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었던 R&D 예산을 증액하고, 첨단 R&D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를 중심으로 예타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혁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첨단 R&D 분야의 예타 폐지는 과학계 숙원이기도 하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책, 청년 자산형성 및 일자리 지원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외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외로 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것을 비롯한 의료개혁 지원책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린다

는 취지의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재정 정책방향도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4·10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수많은 정책을 재정 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3월 24차례 이뤄진 윤 대통령 주관 민생토론회에서 240개 과제가 제시됐다. 이들 과제는 한 번에 추진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로선 과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큰 숙제다. 지난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한정된 재정 상황 속에서 여러 지적과 요구를 어떻게 잘 담아낼 것인가

지, 기재부가 속제해야 할 시간이다라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도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규 정책 재원이 기존 예산의 효율화를 통해 조달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들어서도 세수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 소요를 반영하려면 모든 분야에 걸쳐 예산과 조세지출의 낭비와 중복을 줄이기 위한 ‘제로베이스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떡볶이도 부담... 외식 물가, 더 올랐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돌았다. 이런 현상은 약 3년째 지속되고 있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4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3.0%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2.9%)보다 0.1%포인트(p) 높았다. 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 19개가 평균을 상회했으며 물가가 내린 품목은 없다. 떡볶이가 5.9%로 상승률이 가장 높고 비빔밥(5.3%), 김밥(5.3%), 햄버거(5.0%), 도시락(4.7%), 칼국수(4.2%), 냉면(4.2%) 등 순이다. 이날 서울 명동 거리에 외식 메뉴판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전력망 확충 급한데... 특별법 폐기 임박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립하고  
건설 기간 26개월 단축하는 법안  
전력망 건설 137개월 지연되기도

2051년 전력수요가 현재의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를 나를 전력망 건설은 주민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6일 국회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안은 이달 말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만들고,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과 사업 시행에서 민간의 참여 범위 확대가 골자다. 건설 기간을 현재보다 26개월가량 단축하고 예측 가능한 일정에 따라 전력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에너지 업계는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전기 수요 피크를 의미하는

최대전력은 지난해 100.8GW(기가와트)를 기록해 처음으로 100GW를 넘겼다. 최대전력은 2051년에는 현재의 두 배인 202GW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발전량도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발전량이 늘어난다 해도 전기를 실어나를 전력망 건설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345kV(킬로볼트) 첩탑과 154kV 첩탑의 표본공정은 각각 9년, 6년 6개월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계획된 주요 전력망 건설 사업은 13~137개월 지연되고 있다. 345kV 북당진-신당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경우 당초 목표는 2012년 12월이었지만, 실제 준공 시점은 올해 6월로 늦어져 137개월이 나지 못했다. 전력망 부족이 지속되면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전력산업 생태계 자체가 악화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돼야 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바이오 등의 산업 단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다, 탄소중립 과제도 실현할 수 없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 연결도로 6개 개통하고 버스노선도 신설

### “동탄역 GTX-A 편하게 이용하세요”

동탄·성남·구성역 연계 교통 강화  
동탄역에 출퇴근 버스노선 5개 신설  
성남역은 택시 정거장 설치 예정  
버스 16개, 구성역 경유하도록 조정

정부와 지자체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활성화를 위해 도로 개통과 버스노선 신설, 역사 주차장 확충 등을 추진한다. 통상 철도 노선이 신설되면 수요 안정화에 1~2년 정도 ‘램프업(Ramp-up)’ 기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단축해 더 많은 국민이 G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화성시, 용인시, 성남시와 ‘연계교통 전담조직’(TF)을 운영해 GTX-A 연계교통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동탄역 연계교통 강화를 위해 인

근동서 연결도로 6개의 추가 개통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연결도로 6개 중 2개는 8월, 나머지 4개 도로는 12월에 개통된다. TF는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절돼 있던 동탄역 동서 지역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의 연결도로를 통해 이어져 인근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회하던 버스 노선을 직결 노선으로 조정한다. 현재 출퇴근 시간 서동탄역·병점역에서 동탄역까지 버스로 약 40~50분이 소요되는데, 직결 노선으로 조정 시 소요 시간이 10분 이상 단축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동탄신도시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퇴근용 버스 노선 5개도 신설한다. 신설 노선은 화성시 영전동, 중동, 신동, 송동, 능동 등과 동탄역을 경유하며,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높은 출퇴근 시간에만 각 3회 10~15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성남역에는 상반기 중 출입구 인근에 택시 정거장, 환승주차장을 설치해 자동차 환승 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 6월 말 개통되는 구성역의 연계교통 강화를 위해서는 구성역을 경유하도록 16개 버스 노선이 조정된다. 연말까지 버스 8대 증차 및 1개 노선을 신설하고 주차장도 170면 확충한다. 또 올해 12월 GTX 2번 출구 신설에 맞춰 버스 정류장도 새롭게 설치한다. 5개 버스 노선이 경유할 수 있도록 기존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통상철도노선 신설 시 소요되는 1~2년가량의 램프업 기간을 단축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G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연계교통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GTX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오늘부터 설명회

환경부, 17일까지 전국 7곳서 열어

환경부는 2025년 공공부문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 내 확정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오늘(7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열린다. 세부적인 일시·장소는 △7일 서울역 공간모아 △8일 낙동강청 대강당·영산강청 대강당 △10일 대구합동청사 대강당·전북청 대강당 △17일 금강청 대강당·원주청 대강당이다. 대상은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와 전국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관리자다.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기준’ 세부 사항을 설정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 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 의무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바이오가스의 무생산자는 공공의 경우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 생산목표율은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 기준으로 생산 의무가 부여되는 비율을 뜻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권역별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 공공부문 시범 운영을 통해 행정규칙을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

# ‘종신집권’ 길 연 푸틴… 反서방·패권 장악 속도내나

## 오늘 취임식… 집권 5기 개막

러시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취임식을 열고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24년간 러시아를 통치한 그는 이로써 그 기간을 최소 30년으로 늘리게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년째 치러지는 가운데 서방에 맞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푸틴의 야망은 계속될 전망이다. 5일 AP통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1999년 12월 31일 자리에서 물러난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대행을 맡았다. 이듬해 정식 대통령에 오른 그는 정치적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독립 언론들을 해외로 몰아내면서 일인 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중간에 대통령 대신 총리를 맡기도 했지만, 당시에도 자신의 오른팔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에 앉히면서 사실상 독재 체제를 굳혔다. 그렇게 비대해진 권력은 크림반도 강제합병과 우크라

대전 압승에 우크라이나 동력 얻어 美, 북·중·러 밀착관계 심화 우려 “푸틴, 새로운 전쟁 일으킬 수도”

이나 전쟁 강행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 같은 독주에도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다. 전쟁 중 치러진 3월 대선에서 푸틴 득표율은 77.49%로 집계됐다. 직전 대선에서 얻은 역대 최고치인 76.7%를 넘는 기록이다. 엘라 팜필로바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개표 당시 “현대 러시아 역사에서 이런 집계는 없었다”며 푸틴 대통령을 축하했다.

높은 득표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 대통령이 진로를 바꿀 필요성을 원천 봉쇄했다. 게다가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곳곳이 풀리는 등 러시아군은 전장에서 진전을 보인다.

새 임기 동안 북한, 중국과의 관계는 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약력

1952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생
1975년	레닌그라드대 법대 졸업, KGB 합류
1991년	KGB 생활 청산
1999년	8월 총리로 임명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 대행 임명
2000년	대통령 초선
2004년	대통령 재선
2008년	총리 임명
2012년	대통령 3선(2014년 크림반도 강제 합병)
2018년	대통령 4선(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2024년	대통령 5선(역대 최고 득표율 77.49%)

※ 출처: CNN

밀접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고 최근에는 북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달 중순 중국을 방문해서 주석과 다시 회담할 예정이다. 일련의 모습은 서방과의 신냉전 체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미국도 이러한 점을 경계하고 있다. 로

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러시아가 북한, 중국, 이란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이들 간의 늘어난 유대 관계는 우려스럽고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이 전 세계 패권 장악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 후 추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스테판 윌트 하버드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푸틴 대통령은

엄청난 야망을 갖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서 큰 성공을 거둔 후 다른 곳을 새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반면 고려에 접어든 푸틴 대통령의 선부른 판단들이 자칫 러시아를 파멸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산하 러시아유라시아센터의 막심 사모루코프 연구원은 “이제 크렘린궁은 그 어느 때보다 기본적인 통제도 없이 개인적이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러시아 정치 엘리트들은 푸틴의 명령을 이행하는데 더 복잡하게 되고, 푸틴 정권은 30년 전 소련의 전임자가 그랬듯 하룻밤 새 영구적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자기 죽음에 대한 인식은 71세인 푸틴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확실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의 제한적인 수명이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에 기여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고대영 기자 kodae0@



## 파나마, 중남미 ‘핑크 타이드’ 제동

파나마가 중남미 ‘핑크 타이드(좌파 정권 득세)’에 제동을 걸었다. 중도우파 성향의 야당 목표실현당(RM)의 호세 라울 몰리노 후보가 5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확정되고 나서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당초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였지만, 마르티넬리가 2월 국가 예산 전용, 횡령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그를 대신해 대선 후보로 나섰다. 이날 선거에서 약 34% 득표율로 당선됐다.

파나마시티/AFP연합뉴스

## 중위안화 약세·디플레 ‘차이나쇼크 2.0’ 불씨

2000년대에 이어 중국의 초저가 제품이 다시 세계 시장을 뒤흔드는 ‘차이나쇼크 2.0’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 위안화 약세와 디플레이션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과 유럽 정치인들은 최근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세계 경제가 왜곡되고 있다고 견제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당국의 막대한 보조금 등을 등에 업고 제품을 필요 이상으로 생산하고, 이를 저가에 다른 나라에 팔아 치우므로써 다른 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차이나쇼크 2.0’의 이면에는 보조금과 과잉생산 이외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 중국 위안화 약세와 디플레이션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짚었다.

위안화의 실질적 약세는 다른 수출국을 희생시키고 중국의 수출을 촉진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요 교역 상대국 통화 바스켓 대비 중국 위안화 명목 환율은 최근 고점인 2022년 3월 이후 6% 하락했다. 인플레이션은

명목·실질 환율 격차 사상 최대 글로벌 인플레이션 전쟁과 반대 흐름 자국 수출 경쟁력 강화 이점으로 亞 수출국 통화 가치 하락 압박

반영한 실질실효환율은 같은 기간 14%나 급락했다. 두 환율의 격차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를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컸다. 다른 나라가 인플레이션으로 허덕이고 있지만, 중국은 디플레이션이라는 정반대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점이 중국의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숨겨진 이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장은 “위안화의 실질 가치 하락은 중국의 수출 증가에 분명히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FR)의 브래드 세서 연구원은 “중국 공급망을 이용하는 데는 여전히 막대한 인센티브가 있다”며 “중국은 환율에서 엄청난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위안화 약세와 디플레이션은 특히 중국과 수출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에 따르면 중국의 2월 수출량은 2022년 3월 대비 약 10% 증가한 반면, 전 세계 수출량은 같은 기간 1.4% 늘어나는데 그쳤다. 심지어 일본은 엔저에도 이 기간 수출이 2.8% 감소했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 아시아 국가 수출은 1.1% 줄었다.

또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자국 통화 가치 하락 압박도 강하게 받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올 들어 한국 원화는 미국 달러화 대비 5%, 말레이시아 링깃화는 3%, 베트남 동화는 4.5% 각각 하락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루피아화 약세와 인플레이션 위험을 이유로 지난 달 깜짝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일본은 이달 초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해 수백억 달러를 지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변효선 기자 hsbun@

## 소니, 파라마운트 인수 추진… 엔터사업 탄력

일본 소니그룹이 미국 대형 사모펀드인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와 손잡고 미국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 파라마운트글로벌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라마운트 이사회는 전날 회의에서 소니 측과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3일 미국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 스카이댄스와 약한 달간 합병 단독 협상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이뤄졌다.

파라마운트는 CBS방송, 케이블 채널 MTV, 영화제작사 파라마운트픽처스, 미국프로풋볼(NFL) 중계권 등을 보유한 대형 미디어그룹이다. 최근 케이블 TV 쇠퇴와 스트리밍 사업의 적자 누적 등 업계 전반에 걸친 역풍에 직면해 자사 매각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런 가운데 2일 소니와 아폴로가 공동으로 파라마운트를 260억 달러(약 36조

원)에 인수하겠다는 구속력 없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소니와 아폴로의 전액 현금 인수 제안은 스카이댄스와 합의 가능성에 대한 대안으로 많은 주주의 지지를 받고 있다.

1989년 컬럼비아픽처스를 34억 달러에 사들인 소니가 파라마운트까지 품에 안는다면 미국 영화시장 점유율이 기존의 2배로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영화 집계사 이트더너비스에 따르면 작년 소니픽처스와 파라마운트픽처스 북미 영화 시장 점유율을 합하면 20.4%로, 유니버설스튜디오와 같고 월트디즈니(16.3%·20세기 폭스 포함)보다 많다.

다만 소니의 파라마운트 인수까지는 장애물이 만만치 않다. 스파이더맨, 베놈 등의 지식재산권(IP)을 소유한 소니와의 합병에 대해 미국 당국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진영 기자 mint@

## 美, 이스라엘행 탄약 선적 보류… 가자전쟁 후 처음

### 이스라엘, 라파 지상군 투입 초읽기

미국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자국산 탄약 선적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양국 갈등의 원인이 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공격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약시 오스는 이스라엘 관리들을 인용해 지난 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로 향하던 미국산 탄약 선적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무기 수송을 중단한 것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처음이다.

최근 들어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의 군사작전을 놓고 이스라엘과 미국은 다소 엇갈린 태도를 보인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인도주의적 지원 강화와 휴전 협정 타결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휴전과 별개로 라파를 공습해 하마스를 축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국 간 이견은 최근 공개된 발언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후 “라파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이 벌어지면 미국은 공개적으로 반대할 것이고, 이는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젊은 층에서 반전 시위가 거세게 일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이후 미국 대학가에서 반전 시위로 체포된 사람은 약 2500명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라파를 침공하면 바이든 대통령도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의 6일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라파 공격에 앞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알 마와시와 칸 유니스에 마련된 인도주의 구역으로 이동하라는 대피령을 내렸다. 미국의 만류에도 이스라엘군의 라파 지상군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고대영 기자 kodae0@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귀져라 똑딱! 대한민국



대한민국 기업 가치가 커지는 투자  
**KB증권**에서 함께하세요  
**투자를 똑딱! 캐비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1619호(2024.04.26~2025.04.25)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 (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영업점계좌) HTS, 홈페이지 1천만원 미만 0.1573% + 1,000원/MTS, WTS 0.1973% (대표 수수료)이며, 계좌별,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 KB 증권**

# 제약·바이오 시총 310배 차이... “격차 더 심해질 것”

(상위 8개·하위 8개 기업)

삼바 54조원·압타머 477억원  
“실적 없으면 투자 외면 심해져”  
시총 작을수록 자금 조달 악화  
최대주주 경영권 분쟁 우려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시가총액 (단위: 원, 5월 3일 종가 기준) ※ 출처: 한국거래소



제약·바이오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뚜렷한 실적이 없는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술 이전 등 특별한 모멘텀이 없으면 격차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5월 3일 종가 기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시가총액 상·하위 8개 기업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각각 14조 원, 450억 원으로 31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총액은 기업 가치 평가 척도로,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기업에는 중요한 요소다.

선정 기준은 한국거래소가 분류한 업종 △기초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

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의약품제조업에 해당하는 신약개발 기업과 계열사를 대상으로 했다. 단, 거대 정치 기업은 제외했다.

지난해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 약 54조 원으로 1위

다. 국내 주식시장으로 범위를 넓혀도 전체 4위에 해당한다. 2위는 국내 바이오산업을 개척한 셀트리온으로 시총은 약 41조 원이다.

최근 주가가 상승한 HLB(약 13조 원)와 알테오젠(약 9조 원)이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다. SK바이오팜(약 6조 원),

유한양행(약 5조 원), SK바이오사이언스(약 4조 원), 한미약품(약 4조 원)이 뒤를 이었다.

압타머 플랫폼기업 압타머사이언스는 시총 477억 원으로 가장 낮았다. 현재 GPC3 수용체를 표적으로 한 ApDC 항암제를 개발 중이다. 이어 낮은 순으로 사페론(480억 원), 셀리드(522억 원),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534억 원), 피플바이오(573억 원), 에스씨엠생명과학(585억 원), 큐라티스(634억 원), 팬젠(687억 원) 등이 자리했다. 시총이 낮은 8곳 중 팬젠을 제외한 7개 기업은 최근 5년 내 상장한 곳이다.

전문가들은 기업 간 시총 양극화가 과거보다 심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다른 섹터도 격차가 크겠지만 제약·바이오가 최근 상장했던 기업이 많아 더 클 것”이라고 했다.

벤처캐피탈 A 대표도 “다른 섹터와 비교해 양극화가 더 심하다. 현재 경제 상황

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최근엔 실적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양극화로 자금 조달이 더 어렵단 점이다. 시총이 낮으면 투자에 대한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 최대주주 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영권 분쟁 우려도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A대표는 “기업 대표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시총이 낮아지면 최대주주 지분이 희석되고, 경영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은 낮은 가치에 맞춰 구조조정, 파이프라인 조정, 인수·합병(M&A) 등으로 생존하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좋은 성과를 올리면 시총은 높아진다. 좋은 임상결과를 내거나, 좋은 조건에 기술이전해 현금을 조달해야 한다. 회사가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 ‘자전거 배터리 1위’ 삼성SDI, 4대 바이크쇼 참가

8일까지 ‘차이나 사이클쇼2024’  
용량 10% 개선·4000회 충전 등  
소형모빌리티용 원통형 전지 공개



삼성SDI 임직원이 5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차이나 사이클 쇼 2024’에서 원통형 배터리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SDI

삼성SDI는 5일부터 8일까지 중국 상해 신국제 엑스포 센터에서 개최되는 ‘제32회 차이나 사이클 쇼 2024’에 참가해 원통형 배터리 라인업을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차이나 사이클 쇼는 중국자전거협회가 주최하는 세계 4대 자전거 및 모터사이클 전시회다. 올해엔 전년 대비 약 40% 이상 증가한 1700여 개 업체가 참가했다. 삼성SDI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준비된 삼성SDI’라는 슬로건 아래 마이크로 모빌리티 전동화에 최적화된 다양한 원통형 배터리 라인업을 선보였다.

삼성SDI는 현재 주력으로 공급 중인 21700(지름 21mm·높이 70mm) 원통형 배터리의 다양한 모델을 공개했다. 장거리

주행에 적합한 20와트시(Wh)급 고용량 기종은 니켈 함량 90% 이상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이용해 기존 대비 10% 이상 용량을 늘렸고, 장수명 배터리는 신규 소재

를 적용해 4000회 이상의 수명을 확보했다. 해당 제품은 급속충전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삼성SDI는 탭리스 디자인 적용 제품과 차세대 46파이 배터리를 통해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탭리스 디자인은 정밀 장비를 통해 탭과 전극을 일체화해 전류의 경로를 확장함으로써 출력 성능을 대폭 높였다.

이외에도 RE100 실천 계획과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19회 편입 기록 등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도 함께 전시한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TSR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해 전기 자전거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 31%로 1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전기 자전거용 배터리 시장은 연평균 4%의 시장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으며, 올해엔 그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코웨이 비렉스 안마의자(왼쪽부터)와 침대·안마베드. 사진제공 코웨이

## 정수기·가전 회사까지... 침대 양강 구도 혼돈다

한샘·코웨이·SK매직 등 가세  
에이스침대 매출 2년 연속 하락  
시몬스와 함께 점유율 40%로 독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의 양강 구도였던 국내 침대 시장 지형도가 후발 주자들의 등장으로 흔들리고 있다. 특히 후발주자들은 기술력과 가성비를 갖춘 제품으로 전통 강자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침대(매트리스 포함) 시장 규모는 2조 원대다. 이중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가 약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60%대까지 차지했지만 최근 100명을 선발한다. 이후 면접을 통해 7월 12일, 30명의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시장에서는 현대인들이 수면의 질에 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침대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수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수면 시장은 2026년 4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에초침대 시장은 에이스침대와 시몬스가 양분해왔다. 하지만 최근 한샘, 현대리바트, 신세계가사 등 가구 업체가 침대 시장에 진입하면서 에이스와 시몬스의 양강체제를 흔들고 있다. 여기에 코웨이, SK매직, 소노시

즌 등도 가세하면서 침대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모습이다.

강자들의 실적도 부진한 모습이다. 에이스침대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11.5% 감소한 3064억 원을 기록했다. 2022년(3462억 원)에는 9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역성장한 이후 2년 연속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몬스는 소폭 성장했지만 정체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매출은 3138억 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10% 올랐다. 다만 2021년 3054억 원, 2022년 2858억 원을 기록하는 등 눈에 띄는 성장이 없어서다.

업계에서는 후발주자들의 등장으로 점유율이 떨어졌다고 분석한다. 한샘, 현대리바트, 신세계가사, 코웨이, 소노시즌 등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우며 침대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매장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서 판매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침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구로 자리 잡고 있어 앞으로도 시장은 확대될 것”이라며 “경쟁업체들이 늘어나 시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지만 긍정적인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다양해져 정보도 풍요로워진다”고 말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 정용진의 인문학 사회공헌 ‘지식향연’ 오프라인서 재개

‘탄생 150년’ 치질 리더십 탐구  
대학생 인재 선발 영 그랜드투어  
전과정 마치고 가을학기 장학금

래의 리더, 인문학 소양을 갖춘 청년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인문학 지식 나눔을 꾸준히 펼쳐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 다시 오프라인 행사를 재개한다. 10일부터 이틀간 신세계남산에서 진행되는 인문학향연에서는 윈스턴 처칠 탄생 150년을 기념해 그의 통찰력과 리더십에 대해 탐구한다. ‘위기가 낳은 리더, 리더가 만든 미래’라는 주제로 청년 인재들과 자유로운 소통을 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영국 그랜드투어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윈스턴 처칠의 발자취를 따라 영국 런던과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등을 답사하며

위기의 시대 리더의 조건과 역할에 대해 탐구한다. 그랜드 투어에 참가하려면 인문학 인재 선발에 지원하면 된다. 대학생 신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수료생과 휴학생도 가능하다. 올해 주제인 윈스턴 처칠의 생애를 다룬 책 ‘처칠 팩터’를 읽은 뒤 온라인 미션에 참여한 참가자 중 100명을 선발한다. 이후 면접을 통해 7월 12일, 30명의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지식향연 전 과정을 마친 인문학 인재들에게 소정의 가을학기 장학금도 수여된다. 신세계그룹은 10년간 지식향연을 통해 238명의 대학생 인문학 인재를 배출하고 선발된 대학생들과 함께 10개국 그랜드투어를 하는 등 인문학 중흥을 위해 기여해왔다.

유승호 기자 peter@



정용진(사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애착을 갖고 추진해온 인문학 사회공헌 프로그램 ‘신세계 지식향연’이 오프라인 행사로 돌아온다.

6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2024 신세계 지식향연은 10일 인문학 강연을 시작, 7월 대학생 인문학 인재 선발 과정으로 진행된다. 선발된 인재들은 8월 영국 그랜드투어에 나선다. 2014년 시작, 올해로 11주년인 신세계 지식향연은 인간과 문화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전파하는 신세계그룹의 인문학 사회공헌 사업이다. 신세계그룹은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갈 미

# 삼성·LG '업무용 냉난방기' 결투... M&A 빼든다

## 공조사업 경쟁력 강화

'미래 사업'으로 불리는 냉난방공조(HVAC) 시장을 두고 가진 라이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인수·합병(M&A)이나 지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만간 두 회사가 HVAC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M&A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 배경으로 유럽의 '탈 탄소' 규제 강화가 꼽힌다. 친환경 정책에 따라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를 이용한 히트펌프가 각광받고 있는데, 국내 두 전자 회사가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해외 HVAC 전문 기업을 인수할 것이라던 얘기가 나온 것도 이 같은 배경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3월 미국계 다국적 기업 존슨컨트롤스가 HVAC 사업부를 최근 매물로 내놓았는데 그 인수 후보군 중 하나가 삼성전자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미 2014년 미국 공조회사 콰이어트사이드를 인수하는 등

유럽 탄소규제·가스비 폭등에 화석연료 대신 전기펌프 각광

삼성, 존슨컨트롤스 인수 후보에 LG, 조인트벤처·지분투자 추진

공조 사업 확대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은 크지 않다. 존슨컨트롤스를 인수한다면 빌딩 등에 들어가는 업무용 냉난방 기기를 공급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LG전자는 HVAC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최근 3년간 연간 15%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지난해에는 2022년 대비 30% 가까운 매출을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지난해 '2030 미래비전 발표회'에서 가정·상업용 HVAC 사업 매출을 2030년까지 두 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조 사장은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조인트벤처(JV)나 M&A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빠르게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최근 지분 투자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역시 같은



삼성전자 관계자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한 북미 최대 공조 전시회 'AHR 엑스포'에서 공조 솔루션을 소개하고 있다(왼쪽 사진). LG전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모스트라 콘베노 엑스포 2024'에서 고효율 공조 솔루션을 선보였다.



LG전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모스트라 콘베노 엑스포 2024'에서 고효율 공조 솔루션을 선보였다.

맥락으로 풀이된다. 두 회사 모두 아직은 구체적인 HVAC 사업 확장 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글로벌 HVAC 시장 규모는 점차 커지고, 향후 유럽의 친환경 정책이 국내까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최대 전자회사인 두 회사가 HVAC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시장

조사기업 IBIS 월드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냉난방공조 시장규모는 584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8년 610억 달러 규모로 매년 0.8%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냉난방공조 전공인 한 대학교수는 "오존층 파괴 지수(ODP)나 '지구 온난화 지수(GWP)' 등 유럽에는 여러 규제가 있고, 이에 여러 기업은 규제를 피해가며 친환경적인 냉매를 적용한 에어컨들을

속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는 지금 유럽과 미국에만 있지만 곧 우리나라도 따라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 전쟁 등의 이유로 가스비가 폭등하는 가운데 전기를 활용하는, HVAC의 핵심 히트펌프 분야가 더 개방되고 있어 어떤 기업에든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 유연해진 현대차그룹, 전기차 박람회 하이브리드 대거 출격

###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 기아, 전기차 엑스포 참가 현대차, 인도서 하이브리드 준비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에 힘을 쏟고 있다. 전동화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전기차 중심의 전략을 구사하던 글로벌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4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애리조나주

(州)에서 열린 전기차 박람회 '일렉트리카이 엑스포 피닉스'에 참가해 하이브리드차를 선보였다.

일렉트리카이 엑스포는 북미 지역을 대표하는 전기차 박람회다. 지난 2021년 개최 이후로 전기차 관련 주요 기업들이 참가해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월 올랜드 지역 개최를 시작으로 애리조나,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등 8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완성차 제조사로는 현대자동차, 기아, 포드, 볼보, 테슬라, 리비안, 미쓰비시 등이 참가한다.

기아는 이번 행사에서 EV9·EV6 GT 등 전기차 외에도 스포티지·쏘렌토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델,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 등 하이브리드 차량을 전시했다.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전동화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전기차 박람회'를 표방하는 행사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여럿 선보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룹사인 현대차도 해외에서 하이브리드 전략을 강화한다. 특히 전동화를 중심으로 사업 전략을 구성하던 인도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한다. 지난달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

대차는 이르면 2026년 인도 시장에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출시할 계획이다. 현대차가 현재 인도에서 판매 중인 소형 SUV '크레타'와 유사한 크기의 하이브리드 SUV로 추측된다. 로이터는 "가솔린 파워트레인과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로의 전환은 현대차가 인도에서 판매가 늘어나며 순수 전기차(BEV)에만 집중했던 초기 전략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30%로 늘린다는 계획에 맞춰 전기차를 중심으로 구성했던 현지 전략

을 하이브리드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대를 위해 이미 소형 하이브리드차 개발에도 착수했다. 신원철 키움증권 연구원은 "신규 파워트레인(소형 하이브리드) 기반 라인업은 소형 세그먼트 선호도가 높은 인도 또는 유럽 전략형 모델 양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현대차그룹이 인도에 전략적으로 중저가 가격대의 소형 하이브리드 신차를 투입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재 기자 2mj@

## 삼성전자 "에어컨 주문 다음날 설치"

### 엔지니어 보조 인력 2배로 확대

삼성전자가 여름철 에어컨 성수기를 맞아 판매·배송·서비스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삼성스토어에서는 시스템(천정형)·흡입형(스탠드형·벽걸이형)·창문형 에어컨 등 다양한 유형의 무풍에어컨을 설명할 수 있는 전문 매니저를 운영한다. 1대1 상담을 통해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맞춤형 제품을 추천한다.

에어컨 배송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로직텍은 고객이 에어컨 주문을 하면 바로 다음날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전국에 구축된 22개의 실습장에서 실제 제품을 활용한 설치 교육을 통해 숙련도를 높였다. 현장에서 제품 사용 설명과 고객 질문에 더욱 친절하게 응대하기 위한 교육도 시행한다.

교육을 이수한 인력은 에어컨 서비스 신청이 가장 많은 6~8월에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20% 이상 많은 인력을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가 여름철을 앞두고 에어컨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고객 응대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비스 엔지니어들의 작업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수리안전 보조 인력'도 작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비스 엔지니어가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 제품을 점검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에어컨 '원격 상담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박민용 기자 pmw7001@

## 中, 베트남·멕시코 통한 對美 우회수출 각각 2배 늘어

### 美, 대선 앞두고 우회수출 제재 전망 무렵 "현지 韓 기업 피해 모니터링"

미국의 무역 제재에 대해 중국이 베트남·멕시코 등을 통한 우회수출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베트남을 통한 대미국 우회수출은 2018년 15억7000만 달러에서 2022년 30억2000만 달러로 늘었다.

같은 기간 멕시코를 통한 우회수출도 53억 달러에서 105억5000만 달러로 모두 약 2배 증가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베트남 경유 대미수출이 통상법 301조 대중 관세 및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이 시행된 2019년을 기점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별로는 제재 전후(2015년 대비 2022년) △섬유(6억1000만 달러 증가) △금

속가공(3억7000만 달러 증가) △전기광학장비(3억 달러 증가) 등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타깃인 중국 신장 지역의 주력 생산품목을 중심으로 우회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의 멕시코 경유 대미수출 증가(2015년 대비 2022년)는 전기광학장비(17억1000만 달러), 펄프 및 종이제품(10억2000만 달러), 운송장비(7억6000만 달러) 등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이 같은 우회수출 증가에는 미국의 대중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베트남·멕시코를 활용해 제재를 피하는 것은 미국의 수입 동향에서도 확인됐다. 미국이 2019년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한 결과, 해당 품목에 대한 대중국 수입은 2017년 3209억 달러에서 2023년 2335억 달러로 27.2% 감소했으며, 수입 의존도 역시 7.5%포

인트(p) 하락했다. 반면 동기간 대멕시코 수입(2873억 달러→4430억 달러)은 1557억 달러 증가하며 증감액 기준 1위를 기록했다. 대베트남 수입은 연평균 12.7% 성장하며 연평균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김나을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대선을 앞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우회수출 제재를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베트남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해당 제재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우회수출이 증가한 품목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중간재의 미국 수입 기준 충족 여부 검토 및 관련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산업별로 미국의 무역 규범을 준수하며 신뢰를 기반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중국 대비 비가격적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용 기자 pmw7001@

# “고속주행 때도 ‘실시간 360도 드론뷰’… 車사고 원천 예방”

## 탐방기UP 에이스뷰

모빌리티 AVM 전문기업

“안전에 관련된 토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손승서 에이스뷰 대표는 6일 강서구 마곡동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예전에 유치원 차 사고 뉴스를 접한 것이 계기가 돼 ‘사고를 막자’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빌리티 AVM(Around View Monitoring) 전문기업 에이스뷰는 AVM 솔루션을 통해 수원에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파주 시내버스 하차 사망사고, 서울 송파구 덩프트럭 우회전 사각지대 사망사고 등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에이스뷰는 동영상 뷰(View) 관련 세계 표준(MPEG)을 뛰어넘는 자체 코덱

손승서 대표, 유치원 車사고 계기 운전 사각지대 없애는 기술 개발 국내 첫 AI-AVM 시스템 상용화

원천기술을 10여 년간 개발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촬영, 인식, 처리, 전송하는 AVM 솔루션을 구현해 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주행을 도와준다.

손승서 대표는 “시속 약 30km를 넘으면 꺼져 주차보조수단 정도라면 쓰이던 2D AVM 등과 달리 시속 100km 이상 고속주행 중에도 실시간으로 360도 드론뷰 풀 HD 동영상을 제공하는 3D AVM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달리는 도중에 이미 지나간 영상을 운전자가 보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에이스뷰의 AVM은 차량의 전방, 후방, 좌·우측에 4개의 광각 카메라를 장착해 사각지대를 제로로 구현한 신개념 어



손승서 에이스뷰 대표가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라운드뷰 시스템이다. 손대표는 “사각지대 인한 차량 사고로부터 운전자를 지켜주는 차량 관련 최적의 안전운전 솔루션”이라며 “카메라 초저도 센서로 야간에도 화면의 흐릿함 없이 선명한 영상을 제공해 어두운 밤에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VM 솔루션에서 저장하는 모든 영상

을 실시간으로 동영상 관제센터로 전송, 실시간 현장상황 분석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2월 특허 등록 완료됐다. 손 대표는 “AVM 겸용으로 영상 관제까지 구현해서 핸드폰으로 본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에이스뷰는 국내 최초로 AI-AVM 시스템을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했다. 손대표는 “인공지능(AI)이 사람, 차, 자전거 등을 인식해 알려줘 운전자는 시각에 더해 청각으로도 위험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며 “안정하게 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스뷰 AVM 솔루션은 시내버스, 스쿨버스 등에 장착된다. 경기도 시내버스 시설개선사업에 참여해 경기도 내 버스운수업체와 계약 납품했고, 올해 예산

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공공차량 분야에서도 전국 소방차 약 600대, 전국 청소차 약 2000대에 에이스뷰 3D AVM 장착을 완료했다. 육군, 해군, 해병대의 군용 차량에도 장착했다. 회사는 코로나 위축됐던 예산 증가로 인한 매출 확대를 기대한다.

에이스뷰는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손대표는 “연구개발(R&D)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매출액 대비 약 10% 수준을 투자한다”며 “남과 똑같이 해서 차별점이 없고 차별화된 기능, 새로운 솔루션을 접목하지 않으면 산 중국제품과 싸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대표는 “AI, 레이더 라이더 센서 융합 등 솔루션에 추가할 옵션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계속 기술을 개발해 장수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눈높이 스쿨 ONE**

세상에 없던 1:1 밀착 케어 디지털 학습

초등 전 교과 연계  
최대 교과 문항 수록

개념부터 유형까지  
완전 학습

전문 선생님의  
대면 1:1 밀착 케어

위드웹 학습관리로  
즉시 질문, 오답 해결

**“ 원하던 콘텐츠, 원하던 학습관리 ”**

## ‘에그테크 유니콘’ 트릿지 IPO 총력… ‘흑전’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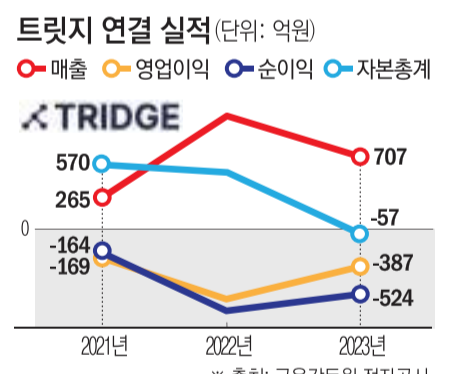
사업 구조 변화로 일시적 자본잠식 투자유치·구독모델 판매 확대 추진

국내 에그테크 스타트업 중 최초로 ‘유니콘’에 등극한 트릿지가 지난해 역성장했다. 매출은 줄고 적자가 지속하면서 재무 안정성도 훼손돼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회사는 올해 흑자전환을 비롯해 추가 투자 유치를 꾀하고 있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트릿지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이 707억 원으로 2022년 대비 38.1% 감소했다. 2022년에 330.3%의 매출 성장세를 보인 것과 상반된 결과다.

트릿지는 2015년 설립된 농식품 스타트업이다. 해외 농산물을 직접 트레이딩하는 것을 비롯해 글로벌 농·축·수산물 무역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전 세계 약 120억 건에 달하는 농·축·수산물 무역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매자’와 ‘판매자’를 다리처럼 연결하며 푸드테크 분야 혁신을 일궈내며 현재 약 4조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앞서 2022년 500억 원 규모의 시리즈D 펀딩을 성사시키며 인정받은 기업가치가 3조6000억 원이다. 회사는 이를 포함 총 1418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다만 작년 실적은 기대 이하로 영업이익은 -38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2년보다는 적자 규모를 35.4% 줄였다. 매출총이익이 전년보다 소폭 개선한 데다 매출의 절반을 웃도는 판매비를 크



게 줄인 결과다. 특히 광고비와 외주 용역비를 각각 118억 원에서 8억 원, 178억 원에서 91억 원으로 대폭 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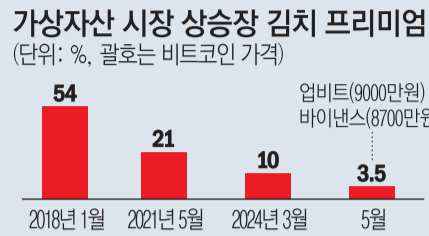
회사 관계자는 “실적 저하는 메인 비즈니스 구조에서 변화가 있었던 영향이 크다”며 “2022년까지 트레이딩 중심으로 농산물을 매매 했는데, 작년 3~4분기부터 기존에 구축해오던 데이터 플랫폼세일을 시작했다. 이것이 구독모델이다 보니 계약금이 있어도 매출 반영이 12개월로 나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트릿지는 올해 흑자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기업공개(IPO)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트릿지 관계자는 “올해 트레이딩 부문은 이미 흑자로 돌아서는 등 회계상 보이는 수치보다 내부적으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며 “데이터 플랫폼 세일의 글로벌 판매량을 확대하는 것이 올해 목표로, 원가 투입이 거의 없다시피 한 사업 특성상 판매가 늘면 흑자 규모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 코인 정책 미비 부작용 되풀이... “법인·외인 투자 허용을”

가상자산법 시세조종 처벌 방침 ‘김프’ 기승... 2% 비싸게 거래 ‘유동성 늘려 김치프리미엄 해소 2단계 입법에서 포함’ 한목소리 해킹 문제에 발행사도 관리 제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정책들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고려돼야 할 김치프리미엄 해소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당장의 규제 방식으로는 사업자가 서비스 확장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 가상자산 투자시장 고질병인 김치프리미엄은

여전히 기세를 부리고 있다. 과거 김치프리미엄은 50%까지 치솟으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코인 시장 하락장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곤했다. 최근 바이낸스와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BTC) 가격은 약 2%의 차이를 보인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해외 투자자 대비 약 200만 원 비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구매한다는 의미다. 김치프리미엄은 2018년 50%까지 상승했다. 국내 시장에서만 가상자산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으면 하락장이 시작될 때 낙폭은 글로벌 대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투자

손해로 이어진다. 업계에서는 김치프리미엄 해소를 위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시장 진입과 외국인 매매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다. 김치프리미엄은 공급 대비 수요가 낮아서 발생하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자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법인과 외국인 투자 허용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입장에서 필요하다. 가상자산 거래 증가 외에 실질적인 서비스가 없는 국내 코인 거래소 특성상 고객 확보를 이용한 거래량 증가만이 유일한 매출 향상 방법이다.

업계는 향후 2단계 가상자산 입법에서 법인과 외국인 투자 허용이 담긴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거래소 사업자 외에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에서 2단계 입법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가상자산 수탁업체 관계자는 “현재 규제는 가상자산 사업자 모두가 받게 돼 있지만, 구체적인 영업이 없고 거래소 위주 공정 거래가 일어날 개연성이 거의 없어 기타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해 명시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프로젝트의 해킹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발행업체들도 사업자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부 코인의 해킹은 가격 급락으로 이어졌고, 해당 코인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해로 변했다.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코인 발행업체들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되면 발행한 코인을 수탁업체에 맡겨야 한다. 이는 해킹 피해 방지와 수탁업체들의 수탁고 증가, 즉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다. 다만, 2단계 입법은 속도와 방향성의 측면을 모두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정책을 만드는 것에 장단점이 있다”며 “시장이 좋을 때는 관심을 받아 속도를 낼 수 있지만,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차별하게 정책을 준비할 수 있지만, 관심이 낮아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단계 가상자산 입법이 통과될 당시에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이 일면서 다소 급하게 처리되기도 했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이시은 기자 zion0304@

## 소설 속 ‘동잠 문방구’ 눈앞에... 주인공 따라 분실물 찾으려 시간여행

### 가보니 밀리의서재 ‘분실물이 돌아왔습니다’ 팝업

“항상 고마워 과거의 나.”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밀리의서재 팝업 스토어. ‘분실물이 돌아왔습니다’의 동잠 문방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주인공 해원처럼,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다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김혜정 작가의 ‘분실물이 돌아왔습니다’는 밀리의서재 출간 플랫폼 ‘밀리로드’를 통해 탄생한 첫 번째 종이책이다. 27세 해원이 시간여행을 하며 과거에 잃어버린 물건들을 찾는 이야기다. 밀리로드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작품을 창작하고 응모할 수 있다. 독자 투표를 1000개 이상 받은 작품 중 인기작은 밀리의서재 오리지널 콘텐츠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연재된다. 이 책은 전자책으로 공개된 이후 종이책으로 출간됐다. 입구로 들어서니 벽돌같이 쌓인 종이책이 눈에 띄었다. 종이책에는 책 속 문장을 적은 책갈피가 꽂혀 있었다. ‘잃어버린 물건은 언젠가 돌아온다’, ‘나는 나

와 함께 살아낼 거고 살아갈 거다’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 팝업 스토어를 방문한 사람들의 시선은 줄곧 이 책갈피에 머물렀다. 20대 여성 두 명은 “20대라 흔들리고 어려운 이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달라고 나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라고 적힌 책갈피 두 개를 챙겼다. 해원의 분실물도 보였다. 다이어리, 가방, 필통은 문구 브랜드 ‘모트모트’와 협업해 한정판 기념품(굿즈)으로 제작됐다. 여러 겹의 천으로 만든 태슬 형태의 키링과 책 속 일러스트로 구성된 스티커팩, 분실물이 담긴 파우치도 있었다. 한 권에는 ‘시간을 떠날 수 있다면



최근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밀리의서재 팝업 스토어 김혜정 작가의 ‘분실물이 돌아왔습니다’를 찾았다. 소설 속 동잠 문방구(왼쪽)와 주인공 해원의 분실물이 굿즈로 제작돼 눈길을 끌었다.

어린 시절 나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남기는 공간이 마련됐다. “공부 더 열심히 할 걸”이라는 후회와 “고생했다”는 격려가 빼곡히 쌓여 있었다. KT의 계열사인 밀리의서재는 이번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자체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신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밀리의서재는 종이책보다 디지털 기반 콘텐츠를 선호하는 독서방식의 변화와 구독 경제가 맞물려 전자책 시장이 확대할 것으로 본다. 이에 전자책-종

이책-팝업스토어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콘텐츠 IP 사업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18일에 발표한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성인의 종합 독서율은 43%로 2021년에 비해 4.5%포인트(p) 감소했다. 매체별 독서율은 종이책이 40.7%에서 32.3%로 하락했다. 반면 전자책 독서율은 19.0%에서 19.4%로 소폭 올랐다. 성인의 종이책과 전자책 독서량은 각각 1.7권, 1.9권

으로 엇비슷했다. 김태형 출간사업본부장은 “밀리로드를 통해 처음 선보인 밀리 오리지널이 좋은 반응을 얻어 이번 팝업스토어를 기획했다”며 “밀리의서재가 발굴한 IP를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하는 동시에 브랜드 로열티를 강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4월 26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진행된다. 글·사진 이은주 기자 letsw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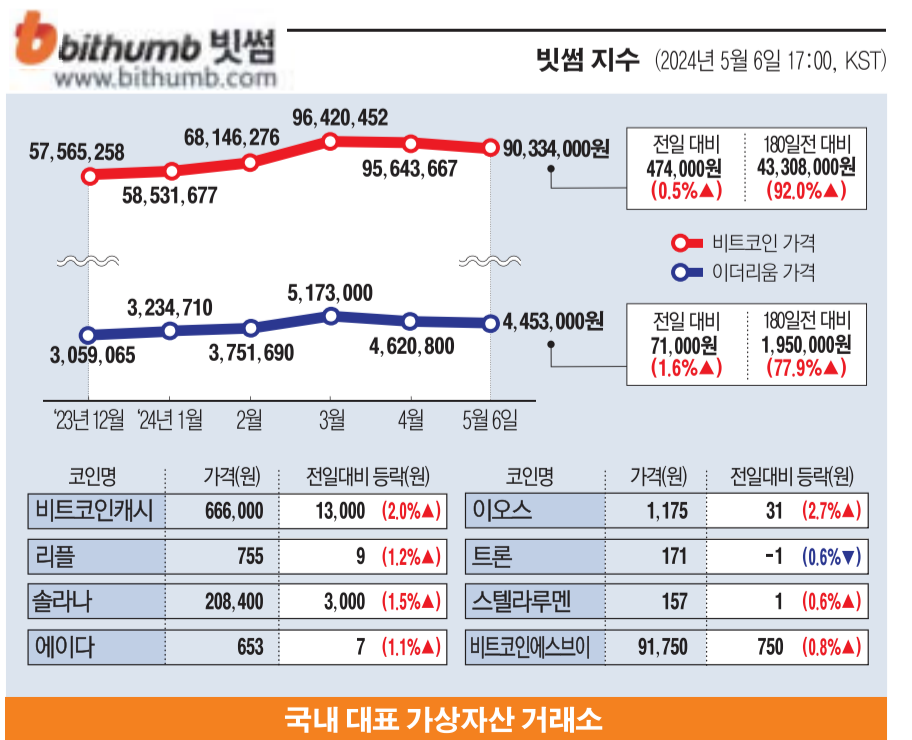
## MZ세대 꼽은 국내 AI 대표기업은... 삼성전자·SKT·네이버

‘삼성 가우스’ 사내 업무에 사용 온디바이스 AI, 갤럭시와 결합 SKT ‘에이닷’ 가입자 400만명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출생)가 국내 대표 인공지능(AI) 기업으로 삼성전자, SK텔레콤, 네이버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리어 플랫폼 잡플래닛은 MZ세대 947명을 대상으로 국내 대표 AI 기업을 물어본 결과 삼성전자, SK텔레콤, 네이버 순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이어서 카카오톡, 현대자동차, LG전자, 두산로보틱스, KT, 포스코, 한화시스

템을 국내 대표 AI 기업으로 꼽았다. 삼성전자는 사내 업무부터 비즈니스까지 전방위적으로 AI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생성형 AI 모델 ‘삼성 가우스’를 출시한 이후 사내 업무에 사용해 왔다. 스마트폰 안에서 동작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자체 개발해 갤럭시와 결합하기도 했다. 2위를 차지한 SK텔레콤은 AI 개인 비서 ‘에이닷’, AI 데이터센터, 초거대언어 모델(LLM), AI 반도체 등 다양한 AI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에이닷’ 가입자 수는 현재 4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에는 창사 40주년을 맞아 ‘글로벌 AI 컴퍼니’로의 도약

을 선언했다. 지난달에는 영국 시장조사기관 옴디아(Omdia)가 세계 주요 통신사 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지표 조사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국 통신사 중 유일하게 대상에 포함된 SK텔레콤은 AI 역량 개발 및 서비스 운영에서의 AI 적용을 묻는 지표에서 일본 NTT 도코모와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3위를 꼽힌 네이버 역시 서비스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고도화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LLM ‘하이퍼클로바X’를 플랫폼에 이식하고, 생태계 확장을 위한 유료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임유진 기자 newj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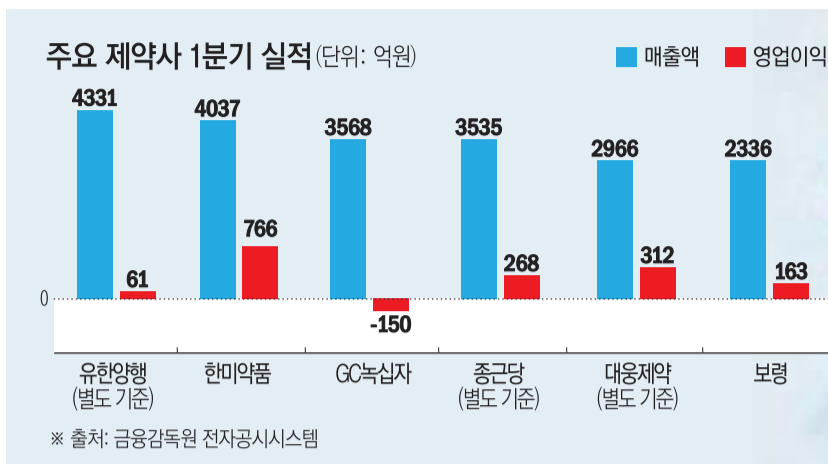
〈한미·보령·대웅〉

〈유한양행·GC녹십자·종근당〉

# 신바람 ‘한·보·대’ vs 역성장 ‘유·지·종’... 실적 희비

## 주요 제약사 1분기 실적표

상장사 대부분 외형성장 선방  
한미약품 영업이익 28% 급증  
유한양행 전년대비 68% 줄어  
의료대란 길어지면 타격 우려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올해 1분기 실적 성적표가 나온 가운데, ‘의료공백’ 상황에서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상장 제약사 대부분이 1분기 외형 성장에 성공했지만, 성장폭과 수익성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매출 상위 주요 제약사 중 한미약품이 장사를 가장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결기준 1분기 매출액 4037억 원, 영업이익 766억 원을 기록해 작년 1분기보다 각각 11.8%, 27.9% 늘었다. 북경한미의 역할이

컸다. 북경한미는 매출액 1277억 원, 영업이익 378억 원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15.1%, 29.6% 증가했다. 중국 내 폐렴과 독감 유행으로 주요 제품 매출이 성장해왔다.

올해 연매출 ‘1조 클럽’이 목표인 보령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 연결기준 1분기 매출액 23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 늘었다. 영업이익은 163억 원으로 2.2% 성장했다. 핵심 품목 ‘카나브페밀리’의 매출액은 381억 원으로 15.5% 늘었다. 항암제도 ‘젠타’ 58

억 원, ‘알립타’ 53억 원, ‘온베브지’ 11억 원으로 각각 두 자릿수 성장했다. HK이노엔과의 신약 ‘카나브+케이캡’ 공동 판매 효과도 나타났다.

대웅제약은 별도기준 매출 2966억 원, 영업이익 312억 원을 기록해 각각 1.5%, 0.6% 소폭 성장했지만,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자체 개발 신약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산 34호 신약 ‘펙수클루’의 1분기 처방액은 17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57% 증가했다. 36호 신약 ‘엔블

로’는 24억 원의 처방실적을 달성했다.

반면 유한양행과 GC녹십자, 종근당은 수익성이 역성장했다.

유한양행은 별도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61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68.4% 줄었다. 매출액은 4331억 원으로 전년보다 0.4% 늘었다. 라이선스 수익은 지난해 1분기 52억 원에서 올해 1분기 25억 원으로 64.4% 감소했다. 연구&개발(R&D) 투자는 350억 원에서 457억 원으로 30.4% 증가했다.

GC녹십자는 작년 4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적자다. 연결기준 1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150억 원이다. 매출액은 3568억 원으로 2.1% 늘었다. 회사는 “자회사의 국내외 임상 진행으로 R&D 비용이 늘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후 하반기 미국에서 출시될 혈액제제 ‘알리글로’의 마케팅 및 고정비가 반영되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했다.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던 케이캡이 빠져나간 종근당은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 3535억 원, 영업이익 268억 원으로 각각 1.9%, 11.0% 줄었다. 케이캡 공백에 따른 매출 타격은 우려보단 크지 않았으나, 수익성은 역성장했다.

의료대란에도 실적의 핵심인 전문의약품 매출은 대체로 견조했다. 다만 의정(醫政) 갈등이 장기화하면 결국 제약사들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1분기는 선방했지만, 의료대란이 길어지고 있어 2분기 실적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 “국민 무좀약” 피엠, 쇼트폼 홍보로 젊은층 공략

### 장수의약품을 찾아서 ③

#### 경남제약 조규민 선임

“경남제약 창업 제품으로 국민의 발이 건강해야 나라가 산다는 슬로건 하에 개발된 ‘국민 무좀약’입니다.”

경남제약의 ‘피엠’은 각질층을 녹여 무좀균을 제거하기 쉽도록 하는 작용의 살리실산을 주성분으로 만들어진 국내 최초 무좀약이다. 1957년 출시 이후 광고나 판촉 없이 구전(口碑)을 통해 국민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피엠(PM) 제품명은 ‘The pioneer in Medicine’의 약자다. 의약을 통한 개척자 정신과 의약 분야에서의 선구자가 되겠다는 기업인이념이 담겼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경남제약 본사에서 최근 본지와 만난 조규민 경남제약 피엠 마케팅팀 선임은 “‘피엠’은 국민비타민 ‘레모나’ 못지않게 경남제약 효자 품목 중 하나다. 약물의 피부 침투 효과가 즉각 나타나 빠른 효과를 기대하는 한국인의 투약습관에 적합한 것이 강점”이라며 “소비자의 신뢰를 얻으며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고,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에 맞춰 꾸준한 제품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창업 당시 피엠정액을 선보인 이후 품목 리뉴얼을 통해 현재 트렌드에 맞춰 항진균제 성분을 추가, 각질 용해와 항진균의 이중작용으로 효능을 높인 ‘피엠 외용액’을 선보였다. 이후 갈아 넣을 필요 없는 손발톱 무좀치료제 ‘피엠 네일라카’, 하루 2~3회 뿌려 사용하는 스프레이 타입의 ‘피엠줄큐액’, 광범위한 환부에 간편하게 뿌리는 가스 스프레이 방식 ‘피엠쿨에어솔’, 휴대성을 높인 크림 타입의 복합제 ‘피엠트리플 크림’ 등 증상과 부위, 사용법에 따라 다양한 성분과 제형의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다.



즉각적 약물 침투 효과 신뢰 얻어  
외용액·스프레이·크림 복합제 등  
트렌드에 맞춰 성분·제형 다양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경남제약 본사에서 만난 조규민 경남제약 마케팅팀 선임은 “‘피엠’은 오랜 시간 소비자의 신뢰를 받은 경남제약의 효자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피엠

개발사	LEMONA 경남과학연구원
발매연도	1957년
효능·효과	무좀, 백선, 원선(사타구니백선)
연매출	약 20억 원 (2023년 기준)



다는 장점을 통해 인지도를 더 높이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아버님, 어머님 세대 때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좀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무좀을 부끄러운 병이라고 여겨 방치하거나, 잘못된 민간 요법 등 잘못된 치료방법을 선택할 경우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선임은 “경증된 제품으로 무좀을 치료한다면 편안하게 질환을 고칠 수 있다. ‘무좀이 아직도 있는 병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무좀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많다”고 설명했다.

조 선임은 피엠이 67세의 장수의약품이 될 수 있었던 건 제품 효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 때문이었다고 미소지었다. 그는 “피엠 출시 후 현재까지 시장에 남아있는 제품이 많지 않다. 이만큼 버틸 수 있던 건 효과가 좋아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왔기 때문”이라며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국민 브랜드로 지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 K-진단, 美지름길 ‘현지 클리아랩’ 인수전

### 엔젠바이오 ‘탑랩’·EDGC ‘GDX랩’ 인수하며 FDA 승인 시간·비용 절약

국내 진단 기업들이 미국 현지의 ‘클리아랩(CLIA lab)’에 주목하고 있다. 시설 인수로 미국 내 자사 제품을 빠르게 도입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는 전략이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해외 진출을 노리는 진단 바이오 기업들에게 미국 실험실 표준 인증 연구실 ‘클리아랩’이 화두다.

클리아랩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정확도와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표준 인증제도 클리아(CLIA)를 통과한, 의료기관 대상의 ‘진단검사 수탁 기관’이다. 병원에서 환자 검체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 병원에 제공하는 진단업무를 대행한다.

클리아랩은 외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지름길로 꼽힌다. 자체 개발한 실험실개발테스트(LDT)를 FDA로부터 별도로 승인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서다. 외국 기업이 자사 제품을 미국 내 운영 클리아랩의 LDT로써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어, FDA 정식 승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국내 기업 중 엔젠바이오는 지난달 미국 뉴저지주 소재 클리아랩 ‘탑랩(TOPLAB)’ 인수를 발표했다. 회사에 따르면 탑랩은 지난해 혈액검사와 마약검사 서비스로 약 800만 달러(10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엔젠바이오는 대형병원과 제약사 등이 몰린 뉴욕과 펜실베이니아주에 인접해 고객 확보에 유리하다고 기대한다. 엔젠

바이오의 클리아랩 인수는 두 번째다. 3월 국내 기업 베르티스가 2022년 샌디에이고에 설립한 기관을 인수했다. 엔젠바이오는 베르티스와 1월 협약을 맺고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암 진단, 치매 진단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이원디아에그노믹스(EDGC)는 작년 10월 콜로라도주 소재 ‘GDX랩’을 인수했다. GDX랩은 미국 내 일부 지역의 공적 건강보험제도 중 하나인 메디케어 청구를 할 수 있는 ‘MOLDX’ 승인도 획득했다. 랩지노믹스는 지난해 8월 뉴저지주의 ‘큐디엑스’를 사들였다. 올해는 2개 기관을 추가로 인수한다는 목표다. 랩지노믹스는 큐디엑스에서 암, 유전질환, 감염 및 대사 질환을 겨냥하는 분자진단 서비스를 도입해 미국 사업 안착을 모색하고 있다.

인수 초기인 만큼, 국내 기업의 클리아랩 확보가 안정적이고 뚜렷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에서 실적이 위축된 진단 기업들은 클리아랩이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다.

다만, FDA의 클리아랩 관련 규제에 변화가 예고되면서 업계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망한다. FDA는 올해 클리아랩에서 사용하는 LDT 역시 FDA 허가를 받도록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클리아랩 인수 비용으로 수십 억 원을 지출한 상황에서 가장 큰 이점 중 하나였던 LDT 규정이 바뀐다면 인수 당시 예상했던 만큼의 매출과 사업 확장을 이루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제품 진출과 지속적인 고객 확보를 위한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주 기자 hsj@

### 국내 기업 미국 클리아랩(CLIA lab) 인수 현황

\*출처: 각 사

기업	인수 시설	소재지
엔젠바이오	탑랩(TOPLAB)	뉴저지
	베르티스 설립 연구소	캘리포니아
이원디아에그노믹스	GDX랩(GDXLab)	콜로라도
랩지노믹스	큐디엑스(QDx)	뉴저지

# 리뉴얼·신제품 '날개'... 실적 기지개 컨 '화장품 투톱'

국내 화장품 업계 양대 산맥인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오랜 부진을 털고 실적 기지개를 켜고 있다. LG생활건강은 대표 브랜드인 '더후',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와 '헤라'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다만 전사적인 실적 반등에도 애물단지로 전락한 로드숍들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6일 LG생활건강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1분기 뷰티 사업 매출액이 7409억 원, 영업이익은 631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과 비교해 매출액은 5.6%, 영업이익은 3.1% 각각 증가했다. LG생활건강은 화장품 주요 브랜드로 '더후', '더페이스샵', '빌리프', 'CNP'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더후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로 압도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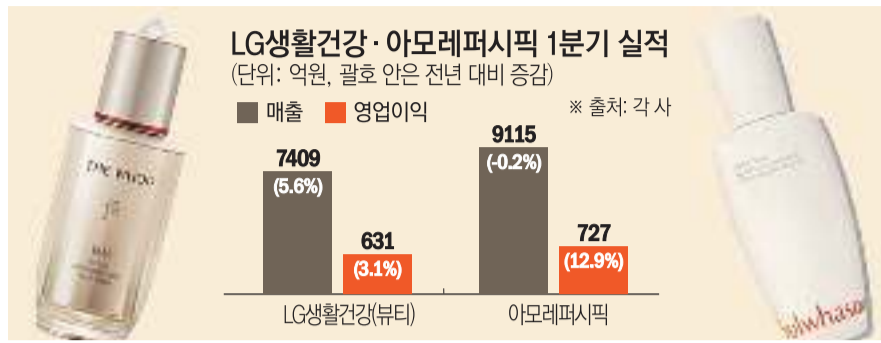
올해 실적 개선도 더후의 공이 컸다. LG생활건강은 리뉴얼 제품인 더후 비침자생 에센스 4.0, 천기단 등의 판매 호조

LG생건, 1분기 영업이익 631억 '더후' 전체 매출액의 52% 견인

아모레, 프리미엄 라인 이익개선 매출 감소에도 영업이익 13% 늘어 "로드숍, 채널 다변화 활로 모색"

덕분에 1분기 실적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더후의 경우 기존 주요 판매 채널이었던 면세점에서는 매출이 소폭 감소했으나, 중국 온라인 매출이 확대되며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후 외에 빌리프의 푹탄크림TM 듀오 2세대, CNP의 초경량 액체타입 제형 선블록 '선퀴드'의 판매량 증가도 실적 향상에 힘을 보탤다.

아모레퍼시픽도 올해 1분기 모처럼 실적이 개선됐다. 주력 계열사인 아모레퍼



시픽 1분기 매출액은 9115억 원, 영업이익은 727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0.2% 소폭 하락했지만, 영업이익은 12.9% 증가했다. 국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27.8% 늘었고, 해외에서도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아모레퍼시픽 또한 '설화수', '헤라' 등 프리미엄 브랜드 중심으로 이익이 개선되며 실적이 향상됐다. 설화수는 진설 라인을 확대하고 '윤조 립밤' 등 신제품을 출시해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 헤라도 신

제품 '루즈클래시'를 출시하고 글로벌 엠버서더인 블랙핑크 '제니'와 함께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도 나섰다. 이밖에 '라네즈', '에스트라', '한울', '일리운' 등 브랜드도 멀티브랜드숍(MBS)과 이커머스 중심으로 판매량이 늘면서 호실적을 견인했다.

다만 양사 모두 전통적인 판매 채널인 로드숍 부진이 복병이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이니스프리, 에뛰드, 에스쁘아 등 주요 계열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모

두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했다. 계열사별로 보면, 1분기 이니스프리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64.9% 급감한 20억 원에 머물렀고, 에뛰드도 4.6% 감소한 51억 원을 기록했다. 에스쁘아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65.5% 줄어 2억 원에 그쳤다.

LG생활건강도 전체 매출의 7%를 차지하는 핵심 로드숍 브랜드 '더페이스샵'이 부진하다. LG생활건강은 더페이스샵과 네이처컬렉션 등 로드숍 실적이 수년째 악화하자, 지난해 가맹사업을 철수하고 CJ올리브영, 쿠팡 등으로 판매 채널을 전환했다. 업계는 로드숍 부진과 별개로 양사가 해외 시장 다변화를 통해 활로를 찾을 것이라 관측이다. 오지우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화장품 업황은 중국 및 수출 지역 다변화와 인디 브랜드의 성장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영 기자 kij42@

## “해외 세븐일레븐 히트 과자, 한국서 맛 보세요”

### 인터뷰

#### 김세미 코리아세븐 MD

글로벌소싱·PB팀 신설 차별화 분기 3회 해외 트렌드 분석 출장 10개 국가 50개 상품 들여와 판매 “직소싱 상품 2.5배까지 확대할 것”



김세미 코리아세븐 글로벌소싱·PB팀 책임 사진제공 코리아세븐

“해외여행 안가고 이제 편하게 세븐일레븐에서 해외상품 구매하세요. 저희가 대신 소싱(직구매)해 올게요”

세븐일레븐 운영사인 코리아세븐의 김세미 글로벌소싱·PB팀 책임은 연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코리아세븐이 올해 핵심 사업 전략으로 ‘글로벌소싱’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중구 본사에서 퇴근 전 짬을 낸 본지와 인터뷰에서 김 책임은 세븐일레븐의 글로벌 소싱 성과와 향후 계획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코리아세븐은 작년 초 차별화 전략 상품 기획 및 개발을 목적으로 글로벌소싱·PB팀을 신설했다. 이 팀은 분기별 3회 이상 해외 출장을 통해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분석, 해외 인기 상품 또는 해외 세븐일레븐의 자체 브랜드

(PB) 상품을 한국으로 공수하고 있다. 총 6명의 팀원 중 김 책임은 선임 상품기획자(MD)를 맡고 있다.

김 책임은 “시장조사를 통해 상품을 발굴, 국내로 들여와 국내 소비트렌드와 맞는지 검증한다”면서 “내부평가, 예상가 책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부합 여부 등도 꼼꼼히 살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 인기 상품의 중간 마진을 줄여, 좋은 가격으로 국내 세븐일레븐에 도입하려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리아세븐은 올해 기준 일본, 미

국, 중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등 10여 개 국가의 약 50개 상품을 들여와 판매 중이다. 이 와중에 별도 팀을 신설한 건 매년 해외 직소싱 상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리아세븐에 따르면 해외 직소싱 상품 매출 신장률(전년 대비)은 2021년 20%, 2022년 50%, 2023년 170%로 급상승했다. 신설 팀이 생긴 이후 해외 직소싱 상품 경쟁력은 더 향상됐다. 작년 10월 선보인 세븐 프리미엄 과자 5종이 대표적이다. 이 중 랑그드사화이트 초코와 랑그드사초코는 전체 과자 상품 중 각각 1, 2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김 책임은 “해외여행을 즐기는 여성의 구매력”을 최근 해외 직소싱 상품 수요 급증의 이유라고 분석했다. 해외 직소싱 상품 매출의 55%가 바로 20~40대 여성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코리아세븐 글로벌소싱·PB팀은 향후 유럽, 미국 등에서 공수하는 직소싱 상품 수를 더 늘릴 계획이다. 김 책임은 “상품 하나를 직소싱할 때 길면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면서 “동남아부터 소싱 국가를 차츰 늘려, 현재 약 50종의 직소싱 상품을 2.5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peter@



삼립 60주년 정통크림빵 팝업 ‘크림 아틀리에’ 오픈 SPC삼립이 정통크림빵 60주년을 맞아 팝업스토어 ‘크림 아틀리에’를 오픈한다고 6일 밝혔다. 16일까지 서울 성수동 퓨처 소사이어티에서 운영되며 현장 예약을 통해 방문할 수 있다. 크림 아틀리에에는 ‘히스토리존’, ‘레시피존’, ‘투표존’, ‘굿즈존’ 등으로 구성됐다. 팝업 공간 디자인은 ‘크림 마스터의 시크릿 레시피’ 콘셉트를 반영해 크림만을 연구한 크림 마스터들의 비밀 작업실을 신비롭고 달콤한 무드의 핑크빛 저택 공간으로 구성했다. 한편 ‘정통 크림빵’은 1964년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19억 개를 기록했다. 사진제공 SPC삼립

## 정관장 ‘임영웅 효과’... 2040 매장 구매 14% ↑

KGC인삼공사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정관장’이 지난달 24일부터 실시한 가정의 달 프로모션에서 2040세대 고객의 구매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버이날 등을 앞두고 부모님 선물로 임영웅을 모델로 발탁한 정관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6일 KGC인삼공사에 따르면, 정관장 가정의 달 프로모션 9일간(4월 24일~5월

2일) 구매고객 데이터 분석 결과 정관장 매장을 방문해 구매까지 이어진 2040세대 고객 수가 전년도 프로모션 동기 대비 14% 늘었다. 정관장 공식 온라인몰인 ‘정물’에서도 2040세대 구매 고객이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50~60세대 역시 건강관리 및 부모님을 위한 선물 목적으로 전년 대비 구매 고객이 27% 늘었다.

김지영 기자 kij42@

## 현대백서 ‘프라하의 낭만’을 만난다

현대백화점이 체코의 수도 프라하를 테마로 한 이색적 체험형 콘텐츠를 대거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16일까지 무역센터점에서 주한체코대사관, 체코관광청과 협력해 ‘프라하, 낭만을 꿈꾸다(Dreaming about Prague)’ 테마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낭만적인 여행지로 손꼽히는 체코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주요 관광 명소와 현지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로 가득 채웠다.

무역센터점 11층 하늘정원은 유럽 3대 야경인 체코 프라하의 파노라마를 재현한 루프탑 카페와 휴게 공간을 조성했다. 중

세 작은 마을을 연상시키는 다홍색 지붕, 동화 같은 분위기의 인형 극장 등을 콘셉트로 꾸며 마치 프라하에 여행을 온 듯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체코의 음악·문학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프라하의 봄 음악제’를 주제로 12일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체코 클래식 음악회가 열린다. 18일에는 유러피안 밴드의 재즈와 영화음악 공연이 진행된다. 도서출판 민음사가 참여해 체코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명작과 세계문학전집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오픈 라이브러리도 하늘정원에 조성된다. 행사 기간 10층 문화홀에서

## 체코 풍 카페·영화·음식 등 무역센터점서 테마행사 진행

는 체코의 국민화가 알폰스 무하의 ‘백일몽’, ‘황도12궁’ 등 유명 판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11층 갤러리H에서는 화려한 색감과 유선형 형태로 기하학적 추상 세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한 체코 현대 미술가 안 칼립 특별전이 진행된다. 17일부터 23일까지 지하 1층 식품관은 체코 길거리 음식 대표 명소인 ‘하벨 시장’으로 변신한다. 필스너 우르켈, 흑맥주 코젤 등 체코 전통 맥주와 체코 대표 와인 생산지인 모라비아 와인 등 다채로운 체코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 세계 초일류 기술 골프채부문

**고반발 기술 1위** → C.O.R 0.962 초격차

**경량화 기술 1위** → 드라이버 205g 30% ↓

**최적화 기술 1위** → 12,312,000 가지 스펙

세계적인 프로처럼 개개인의 스윙에 맞는 스펙의 클럽을 제공

예약문의: 1544-8070 www.banggolf.co.kr

# 증권 재건 '10년 숙원' 이룬 임종룡... 다음 타깃은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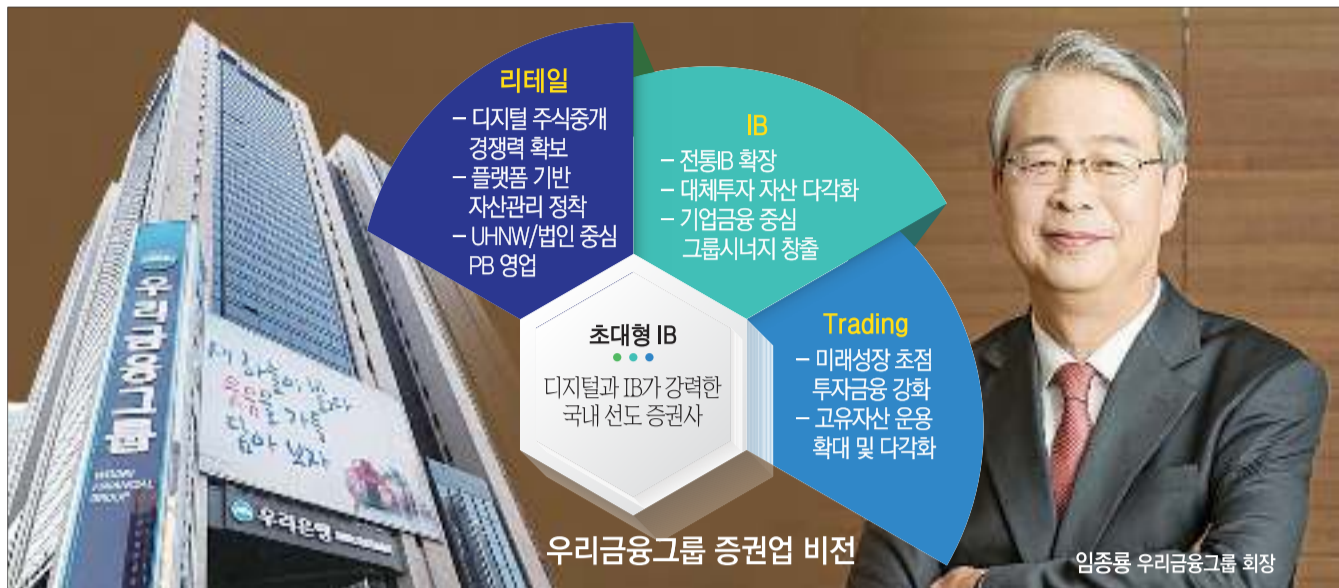
**우리금융그룹 남은 과제는 '우리투자증권' 부활 프로젝트 결실 10년내 업계 톱10 초대형 IB로 종합금융 도약...롯데손보 눈독 "매각가 3兆, 무리하진 않을 것"**

“우리금융그룹의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치유해야 할 과제이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취임 당시부터 강조했던 비은행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첫 발걸음으로 '증권업' 진출에 나섰다.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시절 우리투자증권을 사들여 그룹 규모를 키운 '경력'이 있는 임 회장의 당연한 선택이었다. 업계에서는 임 회장의 다음 스텝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우리금융은 롯데손해보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만약 롯데손보 M&A가 가능할 경우 우리금융의 종합금융 그룹으로서의 위상은 탄탄해지고 수익원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3일 이사회를 열고 우리증권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의했다. 우리증권과 포스증권도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금융위원회의 합병 인가 등 절차



를 밟아 올해 3분기 내에 합병증권을 출범하고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10년 만에 증권사를 보유하게 됐다. 우리금융은 과거 우리투자증권을 보유했으나 민영화 과정에 2014년 6월 증권사를 매각한 바 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IB에 강점을 갖고 있는 우리증권과 디지털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포스증권 합병을 통한 증권업 진출은 그룹의 자본시장 비즈니스 전략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결과물”이라며 “특히 인수후 합병이 아닌 직접 합병 방식을 통해 자금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수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을 통해 양사 통합법인은 자

기자본 기준 18위 권의 중형 증권사로 자리잡게 된다. 하지만 임 회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체성장은 물론 증권사 추가 M&A를 통해 향후 10년 내에 업계 Top10 초대형 IB로 성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자금 여력도 충분하다. 특히 직접 합병을 통해 증권업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보통투자비율(CET1)도 방어하면서 여유를 갖게 됐다. 통상 M&A를 통해 자산이 늘면 위험가중자산도 함께 늘어 CET1 비율이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거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위험자산이 없는 포스증권을 직접 합병하면서 CET1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나이스인

용평가는 전일 포스증권의 자회사 편입이 우리금융지주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신평은 “우리금융의 은행 부문에 대한 자산 의존도는 90%, 이익 의존도는 99% 내외 수준으로 경쟁 금융그룹 대비 은행 부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합병을 통한 비은행 부문 확대는 우리금융 그룹의 수익 기반 다변화 및 전반적인 사업 지위 제고와 성장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우리금융은 우리은행과 기업고객 기반과 계열사간 연계영업 등을 바탕으로 합병증권사의 고객 기반을 빠르게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우리증권 기반의 기업여신과 단기사채, 회사채(CP)

등의 업무를 바탕으로 부채자본시장(DCM), 주식자본시장(ECM), M&A 등 전통 IB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그룹 시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권업 외에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힘쓸 것으로 점쳐진다.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한 롯데손보 인수도 검토 중이다. 이 부사장은 “그룹의 경쟁력 강화와 수익 다변화 차원에서 보험 인수는 검토 대상”이라면서 “롯데손보 인수의 향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보험사 M&A 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히는 롯데손보 매각전에는 우리금융과 함께 블랙록·블랙스톤·컬버그 크레비스로버츠(KKR) 등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도 매각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장에서 롯데손보의 매각가는 최대 3조원대로 거론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금융도 무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사장은 “실사 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시장에서 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 페이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CET1을 훼손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했다가 가격차와 건전성 등의 이유로 철회한 바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 한화생명,印尼 노부은행 SPA 체결... 글로벌 공략 가속

“인니 종합 금융라이선스 퍼즐 완성”

한화생명은 리포그룹과 인도네시아 노부은행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여승주 대표이사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최고글로벌책임자(CGO) 사장과 리포그룹 존 리아디 대표, 아드리안 수헤르만 MPC대표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제 양국 감독당국 인허가 신청과 양국 감독당국의 인허가 승인 절차만이 남아 있다. 한화생명은 이번 계약으로 글로벌 종합금융그룹 도약을 위한 해외은행업 진출절차는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증권·자산운용업에 이어 은행업에까지 진출하며, 종합 금융라이선스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한화금융계열은 2억7000만 명의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매년 5%대



김동원(왼쪽부터) 한화생명 사장,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 아드리안 수헤르만 리포그룹 MPC대표, 존 리아디 리포그룹 대표가 3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노부은행 주식매매계약 계약식에 참석했다.

의 안정적인 경제(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전략을 가속할 계획이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은 “한화생명과 한화금융계열은 이번 리포그룹과의 노부은행 SPA 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 대표 생보사’를 넘어,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리

포그룹과의 파트너십 경영으로, 당사의 디지털 역량과 리포그룹의 은행경영 노하우를 잘 접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서 양사는 그룹 간 동반성장을 목표로 상호협력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재은 기자 dove@

## ‘홍콩사태’ 놀란 ELS 투자자 ‘원금보장’ ELB로 머니무브

저위험·저수익 추가연계사채  
출 5.5兆 발행...작년比 47%↑

저위험·저수익 추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에 돈이 몰리고 있다. 올해 초 홍콩항셱중국기업지수(H지수) 추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ELS 발행 시장이 위축되자, 원리금 지급형 상품인 ELB에 투자자 시선이 쏠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원화 ELB 발행액은 5조423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행액(3조6766억 원)보다 47.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준 ELS 발행액은 9조6998억 원에서 4조6601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지난해 홍콩 H지수 급락에 따른 ELS 원금 손실 사태에 ELS를 향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커지며 ELB로 관심이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ELB는 파생과채권을 결합한 상품으로 만기 혹은 조기 상환 일시에 조건을 만족하면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이다.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안전자산에 주로 투자한다.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는 ELS와 달리 발행사인 증권사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하지 않는 이상 원금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은행은 비이자부문의 상품 포

트폴리오를 채권형과 자산배분형 중심으로 변경했다. 채권형 신탁,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국공채·우량채 등을 위주로 투자하는 ELB와 기타 파생결합사채(DLB) 등을 내세운다. ELS보다 기대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 보장 확률이 높은 상품으로 리스크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신한은행은 2월 ELB 판매를 재개했다. 증권사들도 ELS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키움 제648회 ELB를 판매했다. 만기는 1년으로 세전 5%의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교보증권은 지난달 26일까지 네이버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월지급식 수익 추구 원금지급형 ELB 상품을 공모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일까지 공모주 청약 기념 특판 ELB를 판매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ELB도 발행사가 파산하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며 투자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원금 지급형이라는 것은 기초자산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뜻이지, 원리금 상환 가능성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또 ELB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 의무가 없어 발행사인 증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지 않으며, 정부가 5000만 원 한도 내 보장하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윤혜원 기자 hwyoon@

## 삼성증권, 자산 10억 이상 고객 ‘시네마 슈퍼위크’ 성료

삼성증권은 자산 10억 원 이상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열린 프리미엄 문화행사 ‘전국 SNI(Success&Investment) 패밀리 시네마 슈퍼위크(사진)’에 2000여명이 참여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시네마 슈퍼위크에서는 최신 개봉 영화 ‘범죄도시4’ 프리미엄 영화관 상영이 이뤄졌다. 전국 프리미엄 영화관 10곳(서울·판교·송도·대전·광주·대구·부산)에서 추가 회차

를 포함해 41회차 진행됐다. 삼성증권은 2010년 업계 최초로 초고액 자산가 전담 브랜드인 SNI를 론칭했다. 2020년 자산 1000억 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삼성증권 패밀리오피스, 2022년 뉴리치 전담 센터 ‘The SNI Center’를 각각 오픈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올해 초 ‘SNI 패밀리오피스센터’를 오픈하며 전통 부유층·신흥부유층·패밀리오피스 고객까지



아우르는 국내 유일 슈퍼리치 자산관리 조직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혜원 기자 hwyoon@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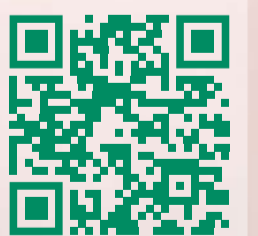


#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http://www.hanadolbom365.com))



돌봄 신청하기



# 부동산PF '옥석 가리기' 시작... 이번 주 정상화 방안 발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發) 위기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이 곧 공개된다. 핵심은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해 '안전판'을 확실히 마련하고, 살릴 곳은 살리고 없애야 할 곳은 확실히 정리하는 신속한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보험권 신규자금은 물론 1조원대 캠프펀드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한 경·공매 활성화 세부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0일 발표될 부동산PF 정상화 계획의 최종안을 놓고 금융업계·관계기관 등과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전략은 분명하다. 빠른 부동산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사업성이 입증된 사업장에 신규 자금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캠프 펀드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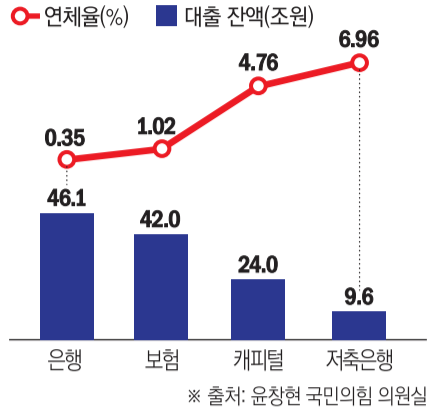
정상 사업장에 신규 자금 투입 1조원대 캠프펀드 활성화 방침 부실 사업장은 매각 유도하기로 경·공매 활성화 세부방안 마련

화 방안을 최종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캠프 펀드를 본격 가동했다.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릿지론 단계의 부실채권 등을 매입해 사업을 재구조화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캠프 펀드 운용사와 사업장 매각 측간 가격 이견차로 8개월 간 집행 실적은 단 2건에 그쳤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대주단이 캠프 펀드에 사업장을 매각한 뒤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는 은행과 보험사가 부동산PF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우량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과 연체율 (2023년 말 기준)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식은 사업성 재평가에 따라 매물로 나오는 사업장을 금융권이 공동 대출을 통해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이 공동 대출로 채권을 넘겨 받더라도 리스크는 존재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채권을 넘겨 받는 경우 '정상여신' 분류를 허용해 충당금 부담을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다. 또 위험가중 자산 규제 완화로 자본비율 부담을 낮추

고 투자를 결정한 임직원엔 면책권을 주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F 시장 안정을 위해 캠프 펀드 활성화 방안은 물론 다른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면서 "업권, 부처, 기관별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방안을 내놓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실사업장을 걸러내는 작업도 본격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경·공매 활성화 방안의 세부내용도 함께 발표할 예정인데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더욱 정교하게 평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현행 사업성 평가 기준은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의 3단계인데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확대된다.

아울러 현재 PF 대주단이 66.7%가 찬성하면 가능한 만기 연장 정족수도 75%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PF대주단 협약은 국내 모든 금융사가 참여한 자율 협약이다.

그간 만기 연장에 기대온 '좀비 사업

장'들은 확실히 정리하고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은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서 두루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부동산PF발 위기론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당장 경·공매 활성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3000개 이상의 PF 사업장에서 경·공매가 쏟아지면서 금융권 관련 자산의 부실 위험 등이 부각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실 사업장 위주로 신속하게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신규 자금이 사업성 있는 사업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부동산PF와 관련해 규모와 내용면에서 유의미한 리스크 감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빠른 대책으로 경착륙 가능성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블룸버그 "韓 부동산 부실 문제, 금융으로 번질 우려"

"부동산PF 위험, 경제 전반 타격줄 수도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증가세 주목해야"

국내 부동산 부실 문제가 이어지면서 비은행 금융기관과 증권사 일부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증가 추세를 저세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레나 퀵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부동산 분야 스트레스가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은행·보험사의 경우 부동산 부문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이 크지 않고 손실 흡수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비은행권

의 부동산 대출 문제가 시스템적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은 작지만,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금융 불안정이 발생하면 시스템적 위험을 피하고자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3554조 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늘어났다.

이 가운데 △은행-비은행권 상호거래 1236조 원(34.8%) △비은행권 내 상호거래 2145조 원(60.3%) △은행권 내 상호거래 174조 원(4.9%)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한국 부동산 분야의 재무 불이행(디폴트) 전염 위험이 크지 않더라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이 고조되고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때 더 큰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봤다.

다행히 디폴트 전염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델트랭크는 지난해 2분기에 0.34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0.37)보다는 내려왔다.

퀵 애널리스트는 충격이 과도 국내 금융기관들이 회복력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양호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일반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원화(110.5%)와 외환(154.7%) 모두 감독기준을 넉넉히 넘어섰기 때문이다.

다만 증권사들의 유동성 대응능력은 감독기준을 살짝 웃도는 만큼, 부동산 경기 둔화와 높은 단기금리 등을 고려할 때 자금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3분기 말 증권사의 조정 유동성 비율은 104.3%에 그쳐 감독 기준인 100%보다 불과 4.3%포인트 높았기 때문이다. 조정 유동성 비율은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부채, 재무보증

의 합산액 대비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계산하며, 이 비율이 100% 아래면 우발 채무 발생 시 자체 유동성을 통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증권사의 PF 관련 대출 연체율은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두드러진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3.37%였던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말 13.73%로 상승한 상태다. 저금리와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 PF 사용이 늘어났고, 증권사들은 PF 대출을 증권화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기 때문이다. 김재은 기자 dove@

## '펫보험' 키우는 손보사들... 가입률 1%대 뚫을까

DB손보, 보장비율 90%까지 올려 현대해상, 7·10년 만기 상품 추가 KB손보는 3대 질환 보장액 2배로 삼성화재도 장례 지원 등 종합보장

손해보험업계가 펫보험 보장을 강화하며 판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자기공명영상(MRI) 등 고비용 검사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유치전에 나섰다. 다양한 상품이 속속 등장하면서 고객 선택권도 높아졌다. 다만, 가입률은 여전히 1%대에 머물고 있어 펫보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여러 통계를 활용해 합리적인 가격대를 찾아 나가기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전체 펫보험 보유 계약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1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업계서 제일 먼저 펫보험을 내놓은 메리츠화재 계약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보험료 기준으로는 64%에 달했다. 메리츠화재는 최근 1200명 회원을 보유한 동물병원협회에 이어



삼성화재 '착한펫보험'. 사진제공 삼성화재

1000여 개의 서울시 동물병원을 회원으로 둔 서울시수의사회와 협동협약을 체결하면서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고 있다.

펫보험 시장의 성장성이 높아지면서 다른 손보사들도 펫보험 시장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의 경우 지난해 '펫블리반려견 보험'을 출시하면서 보장 비율을 90%까지 올리고, 의료비 연간 최대 보상한도를 2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 소유물에 끼친 손해를 물어주는 대물배상책임도 보장하는 신당보

를 내놨다. MRI 촬영 등 고비용 검사의 보장도 늘렸다.

현대해상도 지난달 초 '굿앤굿우리펫보험'을 개정하면서 고객 몰이에 나서고 있다. 특히 내시경을 이용해 이물 제거를 하는 경우 기본 의료비에서 보장하는 30만 원 한도 이외에 200만 원 한도로 추가 보장한다. 반려동물의 평균수명을 고려해 7·10년 만기를 추가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낮췄다.

KB손해보험도 'KB금쪽같은 펫보험' 상품 개정을 통해 업계 최초로 주요 3대 질환(중양·심장·신장 질환)에 대해 기존 대비 보장한도액을 2배로 늘린 '반려동물 치료비II'를 탑재했다. 반려동물 치료비의 수술 1일당 치료비를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치료비 보장한도도 임·통원 각 500만 원에서 각 1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삼성화재도 반려견의 입·통원의료비 및 수술비, 펫장례 서비스 지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다이렉트 전용 상품 '착한펫보험'을 새롭게 선보였다.

김재은 기자 dove@



양동혁(왼쪽부터) 우리은행 반월·시화BIZ프라이머티 본부장, 정진완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본부장, 안영우 KPCA 사무총장, 김형조 남동·송도BIZ프라이머티 본부장이 'PCB 및 반도체 패키징 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우리은행

## 우리銀, PCB·반도체 패키징 산업 지원 강화

159개 기업에 금리·수수료 우대

우리은행은 3일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이하 KPCA)와 'PCB 및 반도체 패키징 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159개 회원사로 구성된 KPCA는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와 반도체 패키징 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된 단체로 우리나라 주력 수출분야인 반도체 △자동차 △전자산업 등에 핵심 공급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중소기업

특화채널인 반월·시화BIZ프라이머티를 중심으로 KPCA 회원사에게 △금리 및 수수료 우대 △기업 컨설팅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공급망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를 활용해 회원사의 구매 프로세스 디지털화도 돕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PCB와 반도체 패키징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우리은행은 중소기업 특화채널과 원비즈플라자를 통해 KPCA 회원사에게 실효성 있는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점점 더 멀어지는 금리인하론... 채권개미 '악소리'

## 기대 꺾인 채권금리 정점론

지난해 말 국내 채권을 산 직장인 김모(37) 씨는 요즘 좌불안석이다. 올해는 틀림없이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지난해 말 국고채(3년)에 4000만 원을 투자했던 게 최근이다.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로 여겨지는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이 빠른 속도로 올라서며 수익률을 갉아 먹고 있다. 김 씨는 "절반은 팔고, 나머지는 '존버' (끈질기게 버티기)해 볼 생각이 다"라고 말했다.

'채권 개미'가 떨고 있다. 올해 미국발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통화 긴축 시대도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최근 급격히 약화하고 있어서다. 내년부터 채권 투자로 인한 자본(매매) 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커졌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연초 이후 개인의 국내 채권 순매수 금액은 16조 3912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개인순매수액(13조2058억 원)보다 24%

올 개인 16.4兆 채권 순매수  
장외채권 잔액 51.3兆 달해  
20·30년물 국고채 수요 몰려

美CPI 상승에 국채금리 올라  
고금리 장기화에 韓銀도 고민

가량 많다.

보유 규모도 50조 원을 넘어섰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47조8933억 원이던 개인투자자 장외채권 잔액은 3월 말 기준 51조2749억 원으로 불어났다.

개인투자자는 만기 20·30년 국고채를 집중 매수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4개가 국고 30년물, 1개는 국고 20년물로 초장기채 투자 수요가 많았다.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질(채권 가격 상승) 것으로 기대한 투자자들이 많다는 얘기도.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 채권 금리 수준이 정점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 이자 수익과 매매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은 급격히 약화됐다. 2024년 들어 미국의 물가통계는 전망치를 웃돌고 있다. 3월 미국의 헤드라인(가격 변동성이 큰 필수 소비재의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인플레이션), 근원(필수 소비재의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것) 소비자물가지수(CPI) 모두 전달보다 0.4% 상승했다. 둘 다 월가 전망치를 뛰어넘었다.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리라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 4.51%에 달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일(현지시간)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끈적이는 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는 언제 될지 모르고, 고금

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적어도 금리 인상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 고금리의 장기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도 더욱 커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를 위해 방문한 조지아에서 "4월 통화(통화정책방향 회의)이 5월 통화의 근거가 되기 어려워졌다"며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금리인하 시기가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내년부터 채권 투자로 인한 자본 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개인을 불안하게 한다. 올해 초 윤석열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금투세 폐지를 공언했지만, 22대 총선에서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며 내년 금투세가 예정대로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혜원 기자 hwyoon@

## 高환율 노리는 빅3 조선株 증권가는 목표주가 줄상향

수급 확대 속 환차익에 호실적  
HD한국조선·한화오션·삼성중  
연초 저점대비 주가 8~22% 쏘

조선주가 최근 부진을 털어내고 순항하고 있다. 신조선가(새로 건조하는 선박 가격)상승과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졌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일 HD한국조선해양은 12만8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초 이후 8%가량 올랐다.

한화오션은 같은 기간 21.81% 오른 3만1000원을 기록 중이다. 삼성중공업도 19.47% 상승한 9390원에 거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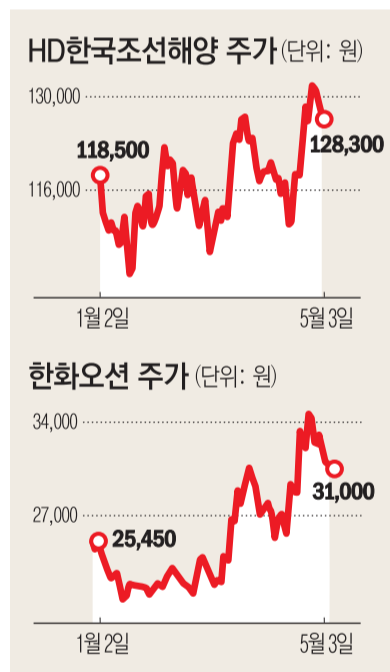
수급과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HD한국조선해양을 1036억 원, 삼성중공업을 2437억 원어치 사들였다. 기관 투자자들은 HD한국조선해양 855억, 한화오션 583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한화오션 44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실적도 살아나고 있다. 세계 1위 조선업체인 HD한국조선해양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602억 원으로 전년 동기(영업손실 190억 원) 대비 흑자 전환했다.

한화오션은 올해 1분기 529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전년 동기(영업손실 628억 원) 대비 흑자 전환한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연결 기준으로 1분기에 전년 대비 297.4% 늘어난 779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고환율 기조가 지속된 점이 호실적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2021년 대비 환율이 널뛰면서 환차익을 거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4월 17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불공정 무역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하면서 반사익도 기대된다.

증권가도 빅3 조선주에 대한 눈높이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신한투자증권(14만5000원→16만5000원), 교보증권(15만8000원→17만2000원), SK증권(15만5000원→17만 원), DB금융투자(16만5000원→18만 원) 등 4곳의 증권사가 목표가를 상향했다.

한화오션은 한국투자증권(2만9000원→4만1000원), 하나증권(3만3000원→4만 원), 삼성증권(2만8000원→3만4000원), NH투자증권(3만3000원→4만1000원) 등 8곳이 목표가를 올렸다.

삼성중공업은 한국투자증권(1만6000원→1만3700원), 신한투자증권(1만1000원→1만2000원), 삼성증권(1만3000원→1만2000원), KB증권(7500원→8500원) 등 4곳이 목표가를 상향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 상장리츠 지분 늘리는 미래에셋운용

최근 정책 수혜 기대감 커지며  
상장리츠 7종목 7.6% 지분 확대  
자산운용업계 리츠 ETF 공들여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상장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지분확대에 나섰다. 10% 넘는 배당률에도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소외받던 상장리츠는 최근 정책 수혜 등으로 주목 받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달 국내 상장리츠 7종목의 지분을 총 7.58% 늘렸다. 리츠별 지분 증가율을 보면 △이리코크랩(1.79%) △제이알글로벌리츠(1.33%) △한화리츠(1.16%) △SK리츠(1.10%) △롯데리츠(1.06%) △미래에셋글로벌리츠(1.04%)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0.10%) 순으로 지분이 늘었다.

이같은 양상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규모가 커진 영향이다. 실제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ETF'의 순자산총액은 2일 기준 4282억 원으로, 지난달 초보다 4.6% 늘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ETF에 매수세가 유입되면 ETF에 편입된 종목

미래에셋자산운용 4월 국내 상장리츠 지분 변동 (단위: %)

리츠명	지분 변동
이리코크랩	9.38 → 11.17
제이알글로벌리츠	6.38 → 7.71
한화리츠	16.97 → 18.13
SK리츠	10.40 → 11.50
롯데리츠	6.05 → 7.11
미래에셋글로벌리츠	24.63 → 25.67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16.19 → 16.29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은 비중은 그대로여도 규모는 키울 수밖에 없어 보유 비중이 늘어난 것"이라며 "고금리 등 여전히 리츠 시장에 안 좋은 요소가 남아있음에도 리츠 ETF에 설정액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금리를 고점으로 생각해 리츠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4월 한 달간 KRX 리츠 TOP 10지수는 1.26% 하락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된 영향이다. 통상 리파이낸싱(차환)이 중요한 리츠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금리가 내려가면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주가에 호재가 되지만, 고금리 시기는 반대로 약재가 된다.

지분 변동으로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최

대주주가 기존 지브이에이자산운용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바뀌기도 했다.

리츠 지분 늘리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뿐만이 아니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도 4월 △NH프라임리츠(7.10%→8.20%) △NH올원리츠(15.28%→15.29%)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14.62%→14.63%) 보유 지분을 늘렸다.

자산운용사들은 리츠 ETF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2019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ETF가 상장한 이후 삼성자산운용은 올해 3월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ETF'를 상장했다. 지난달 30일엔 우리자산운용이 'WOORI 한국부동산TOP3플러스 ETF'를 상장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 수출선 다변화 나선 화장품 '부활 날갯짓'

주식시장에서 암흑기를 겪던 화장품업종이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중국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일본 등으로 수출경로를 다변화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3일 16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들어 16.34% 상승했다. 지난 2일에는 17만44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상승세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덕분이다. 아모레퍼시픽의 1

분기 영업이익은 7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9% 성장했다. 시장 컨센서스(560억 원) 보다는 30% 이상 많다.

LG생활건강도 실적이 살아나고 있다. LG생활건강의 1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2.7% 늘어난 1조7287억 원, 영업이익은 3.5% 증가한 1510억 원을 기록했다.

업계와 증권가는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수출선을 다변화하면서 실적이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1분기 화장품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아모레퍼시픽 등 1분기 실적 ↑  
증권사, 목표주가 상향 줄이어

20% 넘게 증가한 23억 달러(약 3조1303억 원)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업계에선 앞으로 사업 구조를 개선한 만큼 향후 건강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목표주가 상향 조정에 나섰다. 아모레퍼시픽은 실적 발표 후 대부분의 증권사가 20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목표주가를 올려잡았으며, LG생활건강도 최소 41만 원에서 최대 53만 원까지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박상민 기자 si2020@

# 아파트 분양가 20% 육박...비용 부담 키우는 '유상옵션'

발코니 확장·인테리어·현관장... 사실상 필수에 가까운 유상옵션 주택 구매 때 취·등록세도 올라 건설사, 높아진 공사원가 증대 최근 분양단지 전반적으로 확대 분양공고 후반부에 '눈가리기'도

분양가가 전정부지대로 오르는 가운데 유상옵션 부담까지 커지면서 수요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사실상 필수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옵션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고 세금도 더 늘어난다는 점에서도.

6일 본지가 최근 분양단지들의 유상옵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상옵션 비용이 분양가의 10~20%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분양을 마친 안산시 '한화포레나안산고잔2차'의 경우 전용면적 84㎡A

타입 발코니 확장비만 191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 타입의 최고 분양가가 7억 9900만 원을 감안하면 발코니 확장만 선택해도 분양 금액은 8억 원 초반대까지 오른다. 발코니 확장이 사실상 필수란 점에서 실질 분양가는 8억 원이 넘는 셈이다. 이외에도 시스템에어컨과 불박이장, 욕실 인테리어 비용과 가전기기 옵션을 모두 선택할 경우 비용은 6830만 원이 추가된다. 이는 분양가의 8.5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결과적으로 수분양자의 비용 부담은 8억6730만 원까지 늘어난다.

3일 당첨자를 발표한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A2BL(공공분양), 84A'형 기준 현관 창고도어와 복도장을 설치하려면 간접 조명도 반드시 함께 설치하도록 했다. 현관장을 설치하는 옵션에도 주방 가구 간접 조명 설치가 397만 원짜리 패키지로 묶여 있다. 복도 팬트리를 설치하려면 주방도 팬트리를 함께 설치해야 하거나(190만 원), 주방 상판도 27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설치가 가

최근 분양 예정 및 기본양 단지 옵션 비용 (단위: 원) ※ 출처: 청약홈, 각사

지역	단지명, 평형	옵션비용	분양가 (최고가 기준)	분양가 대비 풀옵션 비용 비중	최종 납입액
경기	한화포레나안산고잔2차, 84A	6830만	7억9900만	8.54%	8억6730만
전남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A2BL(공공분양), 84A	8038만	4억8500만	16.57%	5억6538만
충남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84A	8997만	4억8230만	18.65%	5억7227만
서울	개봉루브루, 42C	1948만	5억2300만	3.72%	5억4248만

능하다. 해당 단지 84㎡A형 최고 분양가는 4억8500만 원으로 발코니 확장비(약 734~890만 원)를 포함한 풀옵션은 8038만 원이다. 분양가의 16.57%다.

충남 아산시 일원에 공급되는 '더샵탕정 인피니티시티 2차' 84㎡A형은 최고 분양가가 4억8230만 원, 발코니 확장비용이 1380만 원이다. 여기에 시스템에어컨, 주방 및 욕실 인테리어 비용과 가전, 가구 등 설치비용을 모두 합한 풀옵션 비용은 8997만 원이다. 분양가의 20%에 근접한 수치다.

서울 구로구 '개봉 루브루'는 소형주택 위주로 구성돼 있는데 옵션비용이 만만치 않다. 가장 큰 타입인 42㎡C형 기준 발코니 확장 비용은 770만 원으로,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84㎡형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침실 불박이장 비용, 샤워 공간 설치 비용 등 유상옵션을 모두 선택하면 1948만 원이 추가로 든다.

최근 분양단지의 유상옵션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건설사들이 유상옵션을 통해 높아진 공사원가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분양자 입장에서 보면 분양가에 유상옵션을 추가할 경우 실질적인 분양가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시 내야 하는 취·등록세도 올라가는 만큼 부담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유료 옵션을 빼기도 어렵다. 사실상 필수에 가까운 것들이 유료 옵션으로 설정돼 있어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발코니 확장은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고, 드레스룸 시스템장, 팬트리, 파우더룸, 주방 아일랜드 등 필수적으로 선택하는 사항까지 유료 옵션으로 분리됐다"며 "최근 2~3년 사이 유료 옵션이 더 늘어나며 수분양자들이 돈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 옵션은 비용 지출 항목이기 때문에 수분양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임에도 공고문 후반부에 나와 있어 확인하기 어렵다"며 "일반 수분양자들이 확인하기 쉽도록 상단에 배치하는 등 가독성을 높일 방법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지은 기자 hje@

## 1~4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43%나 쉼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 신축 품귀와 분양가 상승에 따라 과거 분양 단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 영향이다. 특히 강남권 인기 단지뿐 아니라 강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등에서도 활발하게 손바뀜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거래된 분양권 및 입주권은 총 187건으로, 전년 동기(131건) 대비 42.7% 증가했다. 거래신고 기한이 계약 후 30일 이내란 점을 고려하면 거래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개별 단지가운데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분양·입주권 거래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단지는 2022년 분양 당시 침체된 시장 상황과 함께 고분양가 논란이 일며 대거 미계약 됐으나, 이후 입주권 가격에 수억 원의 웃돈이 붙으면 상황이 반전됐다. 현재 전용면적

### 분양가 치솟자 旣분양단지 관심 둔촌주공·개포주공 재건축 최대

167㎡(펜트하우스) 매물은 최고 52억 원에 올라와 있다. 이 타입은 분양 당시 조합원 분양가는 23억 원 이었는데, 무려 29억 원이 된 것이다. 또 전용 84㎡는 최초 분양가 13억 원보다 69% 오른 22억 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강남구에선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거래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단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곳으로, 올해 2월 3기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모집에는 101만3456명이 신청해 평균 33만78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2020년 일반분양 가격으로 공급돼 당첨될 경우 최대 2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폭발적으로 수요가 몰렸다. 현재 펜트하우스 타입은 최고 100억 원, 전용 132㎡는 분양가(22억6000만 원)보

다 22억4000만 원이 된 45억 원에 매물이 올라와 있다.

이밖에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8건, 마포구 아현동 '마포 더클래시' 9건,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 라그라데' 8건 등이 활발한 거래량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수요자들이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의 분양가 상승과 주택 공급 물량 부족 등이 자리한다고 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가격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다 보니 향후 나오는 분양 물량들은 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라 심리가 작용했고, 서울에 선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도 예상돼 강남 지역 뿐만 아니라 강북권에서도 분양권 거래가 다수 일어나는 흐름"이라며 "여기에 총선 전에 매수를 미루던 관망 수요가 총선이 끝난 후의 사결정을 내리면서 거래량이 더 늘었다"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 빌라 갈수록 깊어지는 '침체의 늪'

### 매매가격지수 5개월 연속 하락 전세가율 상승 꺾통전세 우려도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만 간다. 아파트 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 회복세가 뚜렷하지만, 빌라 시장은 매매는 물론 전세와 경매 모두 부진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빌라 수요와 공급의 핵심인 임대차 시장이 무너진 만큼 단기간 내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6일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3월 전세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 동월 대비 0.9% 늘면서 반등했다. 거래량 증가를 이끈 것은 아파트다. 빌라 거래량은 줄었다. 3월 기준 주택 매매량은 5만2816건으로 이 가운데 아파트는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한 약 4만 건으로 집계됐다. 비(非)아파트는 1만2000여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했다.

빌라는 거래량 침체와 함께 가격 내림세도 지속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빌라 매매가격지수는 3월 전국 기준 98.2로 지

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1월 100.3에서 우하향 중이다. 작년 하반기 아파트값 회복기 당시 98.6에서 98.7로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꺾통전세 우려도 여전하다. 부동산원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빌라 전세가율은 재차 오르고 있다. 전국 빌라 기준 최근 3개월 전세가율은 71.6%로, 1월 70.9%와 비교해 0.07%포인트(p) 올랐다. 지방은 3월 74.5%로 1월 72.6%와 비교하면 전국 평균 오름폭의 두 배 수준인 1.9%p 상승했다. 서울 기준으로는 1월 70.4%에서 3월 71.1%로 올랐고, 특히 중구(84.5%)와 서대문구(82.8%), 강서구(80.1%) 등은 3월 기준으로 꺾통전세 위험 수준인 전세가율 8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빌라 전세 시장은 전세 사기 영향으로 전세 수요가 줄고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올해 초 빌라 전세가율이 70%대로 하락한 바 있다.

하지만, 전셋값 내림세보다 매맷값 낙폭이 더 커지면서 전세가율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용욱 기자 dragon@

## 금주의 분양캘린더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둘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에서 708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롯데캐슬스그니처',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스타힐스가현숲',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필하우스 리버시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를 발표하는 곳은 8곳이다. 8일에는 경기 평택시 '평택화양서희스타힐스센트럴파크2차', 경남 함양군 '하이퍼리온골드' 당첨자가 발표된다. 대전 중구 '문화자이SK뷰', 서울 구로구 '개봉루브루', 인천 계양구 '계양롯데캐슬파크시티(2단지)4BL'은 9일 당첨자 발표가 예정돼 있다.

모텔하우스를 여는 곳은 1곳이다. 대전 서구 가장동 '힐스테이트가장더퍼스트' 견본주택이 오픈할 예정이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5/8 (수)	접수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롯데캐슬스그니처 1순위	
		경기	부천시	원미동	부천원미동문디아스트 1순위	
		경기	오산시	가수동	오산역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1순위	
		경기	평택시	현덕면	평택화양동문디아스트 1순위	
		부산	사상구	괘법동	풍경 1순위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스타힐스가현숲 1순위	
		전북	김제시	검산동	김제검산에디움 1순위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필하우스리버시티 1순위	
5/9 (목)	접수	충남	아산시	탕정면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2차 1순위	
		오픈	대전	서구	가장동	힐스테이트가장더퍼스트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롯데캐슬스그니처 2순위	
		경기	부천시	원미동	부천원미동문디아스트 2순위	
		경기	오산시	가수동	오산역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2순위	
		경기	평택시	현덕면	평택화양동문디아스트 2순위	
		부산	사상구	괘법동	풍경 2순위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스타힐스가현숲 2순위	
		전북	김제시	검산동	김제검산에디움 2순위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필하우스리버시티 2순위	
충남	아산시	탕정면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2차 2순위			

(주1)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오픈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2) 오픈 단지는 시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부동산R114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최대 75% 줄어든다

### 건축법 시행령...내달 27일부터

다음달 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75%까지 깎아줄 수 있게 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달 27일부터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주어진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다. 무단으로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 변경

해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개정 건축법은 위반 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임차인이 있어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관해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최대 75%로 높였다. 위반 건축물인 줄 모르고 건물을 샀다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이행강제금은 계속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한정된 기간(1~2년)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증·개축이 만연하고 지자체가 일손 부족으로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을 완화하면 불법건축물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보규 기자 jbk@

# 판교·화정·의정부에서도... 서울동행버스, 출근길 누빈다

서울시가 7일 출근길부터 판교·화정·의정부 등 수도권 주민을 위한 맞춤형 버스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 운행에 나선다. 서울동행버스는 대중교통 수단 부족과 장시간 출근으로 매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시 최초로 서울지역을 넘어 수도권 지역까지 연계해 직접 운행하는 맞춤형 출근 버스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가 3차 노선 확대 준비를 마치고 가정의 달 연휴 이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지난해 8월 서울동행버스는 2개 노선 첫 운영을 시작한 이후 7개월 만에 이용객 7만 4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4개 노선을 추가한 3차 확대로 화성, 김포, 파주, 고양, 양주, 경기 광주, 성남, 의정부 등 8개 지역·10개 노선을 운행하게 된다.

연휴 이후 첫 출근길인 7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곳은 △성남시(판교제2테크노밸리) △고양시(고양화정역) △의정부시(고산지구·가능동)다. 4개 노선

## 오늘부터 4개 노선 추가 확대

첫 운행 7개월새 7만여명 이용 8개 지역 10개 노선으로 확대 내달부터 퇴근시간 운행도 협의 124만장 판 기후카드 이용 가능

모두 간선버스로, 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 서비스인 '기후동행카드'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07번'은 양재역을 출발해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까지 운행하는 노선이다. 다양한 지역에서 승객이 승차하는 양재역에서 업무 지구까지 한 번에 간선버스로 이동할 수 있게 돼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08번'은 고양 화정역을 출발해 디지털미디어시티역(DMC)까지 운행하는 노선이다. 환승 없이 DMC역까지 버스를 통해 진입할 수 있고 주거 지역에서 6호

## 서울동행버스 운행노선도



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이용 편의를 높여 고양시민들의 등교 및 마곡지구 접근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서울09번'은 의정부시 고산지구를 출발해 노원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다.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구에서 지하철 4호선, 7호선 환승이 가능한 노원역으로 바로 도착할 수 있다.

'서울10번'은 의정부시 가능동을 출발해 도봉산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다. 의정부 시민들의 1호선 및 7호선 이용이 편

리해지며, 버스 환승이 편리한 도봉산역 광역버스환승센터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어 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

시는 기존 동행버스 3개 노선(서울04-고양원흥-홍대입구역, 서울05-양주옥정-도봉산역, 서울06-광주능평-강남역)은 정류소 추가 또는 운행시간 변경을 통해 이용 접근성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달부터는 퇴근시간대에도 차례로 운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 협의를 진행 중이다.

윤보영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서울시가 모든 버스 운영 노하우를 집약해 선보이는 '서울동행버스'가 수도권 주민들의 삶에 편의를 선사하는 민생 맞춤 교통정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7일부터 추가 확대 운영을 선보이는 4개 노선은 '기후동행카드' 이용도 가능한 만큼 수도권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으로 내놓은 '기후동행카드'는 이날 출발 100일을 맞았다.

기후동행카드는 현재까지 누적 124만장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후동행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꾸준히 늘어 이달 2일 기준 누적 판매량은 124만 9000장으로 모바일 67만 771장, 실물 57만 8641장이 각각 판매됐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출시 100일을 맞아 7월 본 사업에 도입할 신규 카드 이미지를 깜짝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신규 실물카드는 15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 서울 상징 캐릭터 '내친구 해치'가 포함됐다.

7월 출시될 신규 실물카드 디자인은 총 2종으로 이날 공개된 카드 디자인 외에 시크릿카드 디자인도 7월 공개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가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출시된 지 백일이 지났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관,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재민 기자 chaebi@



비와도 즐거운 어린이날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이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린 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를 찾은 시민들이 휴일을 즐기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2명 무기징역

택시기사 살해 후 16년만에 붙잡혀 1심에선 30년형... 대법, 원심 확정

인천의 한 고가 밑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기소된 40대 남성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 씨와 공범 B(4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에서 개인택시 기사(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당시 시신을 현장에 내버려둔 채 빼앗은 택시를 타고 범행 현장에서 2.5km 떨어진 미추홀구 관교동 주택가로 이동해 미리 준비한 다른 차를 타고 달아났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택시 뒷좌석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

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A 씨 등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불쏘시개로 사용한 도주 차량의 설명서 책자에서 지문 일부(쪽지문)를 찾아냈고, 사건 발생 16년 만인 지난해 이들을 강도살인 피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백한 과학적 증거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살해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곤궁에 처하자 택시강도를 계획하고,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이후에는 자신들의 죄증을 인멸하기 위해 택시 안의 지문을 지우고 택시를 불태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유족들의 이와 같은 피해는 전혀 회복된 바 없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이현 기자 spes@

## 근로복지공 경력 '반토막'... 法 "교육청, 처분 정당"

보건교사 임용땐 100% 인정됐지만 교육청 50% 줄여 호봉 재획정 통보 취소 소송에도 '업무 차이나다' 패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보건교사로 임용하면서 공단 근무경력을 절반만 인정한 교육청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 A 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 재획정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00~2001년 서울대형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 2001~2005년 간호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뒤 2005~2018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직

으로 일했다. 2018년부터는 보건교사(2급)로 임용됐다.

애초 교육청은 A 씨의 경력 전부를 경력연수로 인정해 호봉을 25호봉으로 확정했다. 이후 A 씨는 2021년 정기승급으로 29호봉이 됐고 2022년 보건교사(1급)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2022년 교육청은 당초 100% 인정했던 A 씨 경력을 50% 호봉경력으로 인정해 A 씨의 호봉을 24호봉으로 재획정하게 된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같은 해 3월 호봉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원소송심사위원회에도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 씨는 자신의 경력이 공무원 보수규정상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100%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해 호봉을 산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경력을 단순히 공공기관 등에서 행정업무 경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할 당시 '보상부', '재활보상부', '진료비심사부'에서 근무했는데 해당 부서들은 환자의 치료,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행위 등을 포함한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 보호·증진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보건교사의 업무와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 경력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50%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해야 하고, 같은 규정에서 정한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A 씨의 경력을 절반으로 축소한 교육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박일경 기자 ekpark@

## 현재 "회계직원 국고손실 가중처벌은 합헌"

"1억 이상 횡령 경제 파급 효과 커"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 행위를 가중 처벌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은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손실을 입힐 것을 알고서 횡령의 죄를 범하고 그 손실액이 1억 원 이상에 달할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 형법 제355조 제1항 중 횡령에 관한 부분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

계직원으로서 국고를 손실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형사재판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가운데 회계직원책임법과 형법 355조 1항 '횡령'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신청했으나 2021년 1월 기각됐다. 이에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현재는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 대상인 1억 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이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배우고 익히면 즐거워지지 않아요!

논어 학이편 1장 속 배움의 의미를 담은 학이재에서  
어르신들이 디지털을 쉽게 배우고 누릴 수 있도록  
신한은 시니어 금융소비자 교육센터를 만들어  
새로운 세상을 배워가는 시니어와 아름답게 동행합니다

시니어도 누려야 하니까  
아름다운 동행



###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신한 학이재]

신한 학이재는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고객에게 다양한 디지털 기기 체험과 디지털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복합교육센터입니다  
(2023년 9월 개관, 디지털 금융기기 체험, 모바일 뱅킹앱 교육, 생활형 키오스크 체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

# “웹툰 IP 활용 게임 ‘나혼렘’ 글로벌 캐시카우 기대”

〈나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 문준기 넷마블 사업본부장

웹툰, 글로벌 누적조회 143억 뷰 애니메이션, OTT 통해 1월부터 게임, 내일 출시 사전등록 1200만 “웹툰→게임화 성공 가능성 높아”

“국내 콘텐츠 업종에서 매출 규모가 가장 큰 게임산업을 전제로 미디어 콘텐츠의 투자나 육성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준기 넷마블 사업본부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소셜의 텍스트가 이미지화되고, 이미지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화된 이후, 최종적으로는 움직이는 주인공을 내가 직접 조작하는 형태의 발전이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국내 미디어 콘텐츠 업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 원블드 출시 하루를 앞둔 넷마블의 ‘나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나혼렘)’은 웹소설→웹툰→애니메이션→게임까지 지식재산(IP)의 형태가 확장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웹툰 플랫폼에 유통된 ‘나혼자만 레벨업’의 글로벌 누적 조회수는 143억 뷰에 달한다. 올해 1월부터는



문준기 넷마블 사업본부장은 8일 출시하는 신작 액션 게임 ‘나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에 대해 “누적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한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에 이은 넷마블의 캐시카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각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애니메이션도 서비스되고 있다.

이같은 인기로 나혼렘은 3월 19일부터 시작된 사전등록에서 한 달이 되기 전에 1200만 명을 돌파하며 뜨거운 기대감을 입증했다. 이는 넷마블에서 출시한 게임 중 가장 높은 글로벌 사전등록자 수다. 이에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7대죄)에 이은 글로벌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문준기 본부장은 “웹툰이 전세계 143억 뷰를 기록한 만큼, 대중성이 강한 IP라고 생각된다”며

“특히나 웹툰, 애니메이션, 액션 게임 등의 관심이 많은 10대 후반에서 40대까지의 이용자들이 주 타겟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넷마블은 이용자들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웹툰 IP를 활용한 게임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 본부장은 “유튜브나 영상 콘텐츠들이 점차 숏폼 형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처럼 모바일게임도 점차 플레이타임이 짧고 흔히 얘기하는 방치형·키우기 형태의 게임들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며 “웹툰 역시 짧은 호흡을 가지

고 스낵컬쳐 형태로 소비하다보니, 모바일게임의 이용자들의 소비패턴과 타겟층이 많이 유사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웹툰의 유명 IP의 팬들 역시 모바일게임이 타겟하는 유저들과 교집합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웹툰 장르 중에 게임에 입화하기 좋은 소재나 세계관을 가진 경우 게임으로 개발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며 웹툰 IP를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웹툰 IP 활용 게임 제작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뜨겁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웹툰·드라마 등 국내 인기 IP를 제공할 협력사를 발굴하고, 2028년까지 최대 50개 게임의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대감에 넷마블은 나혼렘이 캐시카우로 역할, 전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본부장은 “(나혼렘) 특정 국가의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아닌, 글로벌에서 사랑받는 IP인 만큼 성과 자체도 글로벌 전 권역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매출적인 성과 역시 최근 7대죄가 누적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한 것처럼, 나혼렘 역시 글로벌 이용자 모객을 기반으로 넷마블의 중요한 캐시카우 역할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한독·당뇨병학회 ‘한독학술상’ 허지혜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당뇨병학회는

‘제20회 Young Investigator Award (한독학술상)’ 수상자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허지혜 <사진> 교수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7차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됐으며, 허 교수에게는 약연상과 부상 1000만 원이 수여됐다.



대한당뇨병학회가 주관하고 한독이 후원하는 ‘Young Investigator Award’는 국내 당뇨병 연구 발전에 기여한 의료계 인사에게 수여하는 학술상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

## 제주항공 봉사단, 보건복지부 장관상



제주항공은 객실 승무원 재능기부 봉사단이 제주시 한림체육관에서 진행된 ‘제102회 제주시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제주항공의 객실 승무원으로 구성된 재능기부 봉사단 ‘봉우리’는 2007년부터 18년째 제주보육원을 방문해 보육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 등 재능기부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해욱 기자 haewookk@·사진제공 제주항공

## ‘2030 청년영화제’ 개최 지원협약 금융산업공익재단, 1억7000만원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청년문간 사회적협동조합과 3일 ‘2030 청년영화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2030 청년영화제는 지난해 재단의 사업공모전에 선정돼 재단으로부터 총 1억7000여 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되며, 영화제의 공모기간은 이달 17일까지다. 모집 대상은 전국 20세~35세 이하 영화 및 다큐멘터리 연출 경험이 적은 청년이다.

문선영 기자 moon@·사진제공 금융산업공익재단

## CU, 독립유공자 후손에 기부금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은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인 한국해비타트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해비타트 비전홀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송지택<사진 오른쪽>BGF리테일 혁신본부장, 이광희<가운데>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 장태원 빅워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후원금은 1919년 4월 충남 청양군 독립만세운동 당시 군중들에 앞장서 만세시위를 주도했던 이구현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펼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유승호 기자 peter@·사진제공 BGF리테일

## 포스코1%나눔재단 ‘상상이상 사이언스’ 확대 운영

### 포항·광양 외 전국서 신청받아

포스코1%나눔재단은 중학생들의 과학교육지원과 진로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인 ‘상상이상 사이언스’ 과학교실을 올 12월까지 포항과 광양지역 46개 중학교에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나아가 교육부와외의 업무협약을 통해 과학교실 참가를 원하는 타 지역 중학교에도 접수를 받

아 40개교, 약 4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교실을 확대할 예정이다.

상상이상 사이언스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철을 이해하고, 철에 대한 과학기술과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또한, 포스코1%나눔재단과 교육부는 올해 상상이상 사이언스 참여학교를 대상으로 창의 과학 아이디어, 키워드



영상제작, 탄소중립 실천수기 등 프로그램 내용 기반의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사진제공 포스코1%나눔재단

## 하나금융, 취약계층 아동과 덕수궁·경제뮤지컬 나들이

하나금융그룹은 어린이날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임직원 참여 ‘문화체험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아동양육시설 아동 80여 명을 초청해 덕수궁 방문과 어린이 경제 뮤지컬 관람을 진행했으며 그룹 임직원 20여 명도 함께 참여했다.

먼저 덕수궁에 집결한 아동들은 그룹

임직원 봉사자들의 안내와 전문 역사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며 덕수궁을 관람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춘 흥미로운 맞춤형 해설로 진행됐다.

이후 아동들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강당으로 이동해 어린이 경제 뮤지컬 ‘재크의 요술지갑’을 관람했다. 재크의 요술지갑은 하나은행이 2007년부터 17년째



이어오고 있는 뮤지컬 형식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에게 친근한 동화 ‘재크와 콩나물’을 모티프로 하고 있다.

김재은 기자 dove@·사진제공 하나금융그룹

## 부음

### 아르헨 첫 월드컵 우승 이끈 메노티 감독

아르헨티나의 첫 번째 월드컵(1978년) 우승팀 감독을 역임한 세사르 루이스 메노티 감독이 5일(현지시간) 향년 85세로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1938년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태어난 메노티는 미드필더로 활동하다 1970년부터 축구팀 감독으로 전향했다. 그는 아르헨티나 뉴웰스 올드 보이스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최대 명문 클럽인 보카 주니어스와 리베르 플레이트, 스페인

의 바르셀로나 그리고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했다. 메노티의 가장 큰 업적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1978년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아르헨티나에 우승컵을 선사한 것이다. 당시 그가 대표팀에서 뛰고 싶어했던 신에 디에고 마라도나가 18세로 너무 어린다고 대표팀에 발탁하지 않아 서로 앙숙이 됐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메노티 감독은 1974년부터 1982년까지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을 이끌었으며, 당시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근희(전 노동부 이사관 대변인·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전 대한산업안전

협회 부회장) 씨 별세, 강재욱(전 롯데백화점 대전점장)·재준(롯데홈쇼핑 채널 본부장 상무)·재연 씨 부친상, 이성화 씨 시부상, 정혁철 씨 장인상 = 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8일 오전 9시, 02-2258-5940

▲안경진(전 강원도지사) 씨 별세, 서순원 씨 남편상, 안정원(오산대 교수)·정상(사업)·정훈(삼성SDI 변호사) 씨 부친상 = 4월 3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8일 오전 5시 30분, 02-3410-6915

▲이재영 씨 별세, 정태순·태의(전 서경대 전자공학과 교수)·태숙·태은·태근 씨 모친상, 강봉식 씨 장모상, 지명숙·한신자(이즈피애플 공동대표) 씨 시모상 =

5일,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8일 오전 8시, 070-7816-0349

▲서경애 씨 별세, 안보경·보금·보령·영훈 씨 모친상, 박정은 씨 시모상, 강대순·김만성·주승재 씨 장모상, 김지학(국제연세대 한국지부 이사장) 씨 조모상 = 6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8일 오전, 02-6986-4453

▲정옥량(전 KBS 기자) 씨 별세, 박명옥 씨 남편상, 정수호(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경(갑포 아티스트)·진화 씨 부친상, 강미숙(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씨 시부상, 구자하(갑포 아티스트) 씨 장인상 = 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8일 오전 6시 20분, 02-2258-5919

## 인사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승진> △수치모델링센터장 김동준 <3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조남산 <4급 전보>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장 박수희

◆티와이홀딩스·태영건설 <티와이홀딩스> △부사장 겸 비서실장 오동현 △경영관리실장(전무) 김형민 △미디어정책실장(상무) 이상욱 △태영건설 △운영본부장(부사장) 이승모 △경영본부장(부사장) 황선호 △기술영업본부장(전무) 이강석 △현장관리본부장(전무) 안치열 투자사업본부장(전무) 김도훈 △법무실장(상무) 정경섭

인재육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자유기업원 이사장

지난 총선을 치르는 과정과 그 결과를 보면서 정치가 무엇인지 새삼 되돌아보게 된다. 우리의 정치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진다. 정치란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국가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 만든 사회적 기구다.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혼자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워 서로 연대하여 살아가기 위해 만든 것이 국가다. 그래서 국가의 책무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기능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구가 정부다. 그리고 그 정부를 중심으로 국가의 책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사람이 정치인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할 일은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의 보호다.

지난 총선 때 이러한 책무를 다하겠다는 사람은

드물었다. 국민 모두를 위한 이러한 일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 좇는 정치인이 대부분이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의 대결보다는 감정적인 진영 간 다툼을 극렬하게 벌였고, ‘선심성 돈 풀기’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했다. 한편 이런 포퓰리즘 공약들이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줄 인식하지 못하고 많은 국민이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던졌고, 그런 정당이 다수당이 됐다.

총선 이후 벌써 우리의 미래가 걱정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총선에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새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과 소상공인 대출 이자 1조 원을 깎아 주는 등의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산다. 단지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잘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생산해 낸 소득을 다 소비해버리면 안 된다. 그중 일부를 저축해야 한다. 그 저축을 이용해 금융 수단에 투자하든

가, 아니면 자본재를 구매해 생산성을 높여 재화 생산을 늘려 나중에 더 많은 소득을 올려야만 미래에 잘살게 된다. 벌어들이는 소득을 다 써버리거나 빚내서 소비하는 현재지향적인 사람이 미래에 부닥치는 것은 피폐한 삶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계속 발전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절약하고 자본을 축적해야 한다. 그

총선후 포퓰리즘정책 요구 거세져  
민생살리기 미명하에 돈풀기 걱정  
자본축적 줄면 국가쇠퇴 깨달아야

래야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의 삶도 나아진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멈추고 국가는 점차 몰락하게 된다. ‘선심성 돈 풀기’ 포퓰리즘 정책은 미래를 희생하여 오늘날 살겠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저축과 자본축적을 방해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역사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으로 몰락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들, 그리고 그리스와 그러한 나라들이다.

오늘날의 민주정 체제에서는 표를 얻어서 당선돼야 집권할 수 있으므로 정치인과 정당은 국가의 미래보다는 현재의 당선과 집권에 열중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정당이 당선과 집권을 위해 내놓는 정책이 대체로 미래지향적이지 아닌 현재지향적이다. 당선에 필요한 유권자들의 지지표를 확보하기 위해 증세, 재정팽창과 통화팽창을 통해 과도한 복지지출, ‘선심성 돈 풀기’ 등 현재지향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다. 이러한 것들이 보통 ‘민생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정책들로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수혜는 기껏해야 복지수당을 조금 받는 정도로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반면 이러한 정책들로 자본축적이 줄어들어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 국가는 점점 쇠퇴해 가고 많은 사람이 궁핍해진다. 결국 포퓰리즘 정책은 대다수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시행되지만, 의도한 효과는 달성하지 못한 채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 국민과 정치인들은 이점을 인식해 각성하고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정치인들은 진정한 정치가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그에 맞는 정치를 해주기를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남미행 급행열차’를 탈지도 모른다.

‘LNG 비즈니스 허브’ 도약의 길

‘평누도’? 이름보다 규제개선을

우리나라 가스산업의 발전은 정부가 공기기업인 한국가스공사를 육성·지원하면서 이루어졌다. 40여 년 전 가스 불모지대인 한국에 전국 5000km 환산 배관망과 세계 최고 LNG 터미널 인프라를 구축한 것은 가스공사 덕분이다. 이에 더해 지역 도시가스 업체는 수도권 90% 이상, 전국적으로 85% 이상 도시가스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가스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20년 전부터 도입된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 제도는 우리나라 가스산업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하였다. 민간기업이 스스로 필요한 만큼 산업 및 발전 용도로 LNG를 수입함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 LNG 도입 규모의 20% 가까이 민간에서 책임지게 되었다. 비록 전체의 5분의 1 규모이지만 민간 LNG 도입이 정착됨에 따라 국내 수요 변화나 LNG 공급 차질 등 LNG가 남거나 부족할 때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물량 교환 등을 통해 수급 조절을 원활히 할 수 있었다. LNG 직수입 제도를 통하여 가스공사 단독으로 국내에 LNG를 공급할 때보다 수급 조절이나 가스인프라 활용 차원에서 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가스공사-민간업체 파트너십 강화 절실해

LNG는 전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입할 수밖에 없지만, LNG 산업은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다. 우선 가스공사와 민간 수입사 간 LNG를 공동구매 하는 것은 어떨까? 단일기업으로는 세계 최대 물량을 수입하는 가스공사의 도입경쟁력·글로벌 교섭력과 20개가 넘는 민간 직수입사의 다각적 네트워크 채널이 LNG 공동구매를 통하여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가스한국 파트너십’이 LNG 트레이딩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일부 민간 직수입사가 LNG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지만 가스공사가 본격적으로 합류한다면 아마 우리나라 가스 도입의 경쟁력과 시장기회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다. LNG 트레이딩 분야에 가스공사가 민간 직수입사와 함께 파트너로 참여할 경우, 가스터미널·저장탱크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가스인프라를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의 가스 내수 규모와는 비교되지 않을

시론

김창규  
민간LNG산업협회 부회장



정도로 많은 LNG 트레이딩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세계 3위 규모의 국내 LNG 수요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싱가포르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LNG 트레이딩 비즈니스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아시아, 적어도 동북아 LNG 비즈니스의 허브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세계 최고 가스 인프라 기술력 활용을

다음으로 공공-민간 LNG 파트너십을 통하여 글로벌 LNG 투자 진출 기회와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 참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해외 LNG 프로젝트에 가스공사가 투자함에 따라 민간 LNG 업체도 참여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AI 기술 및 데이터 산업을 염두에 두고 전 세계는 고급 에너지원으로 전기화를 추구하면서도,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여 일반 에너지원의 가스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때 글로벌 가스 인프라 비즈니스나 전 세계 석탄발전의 LNG화에 가스공사와 민간LNG업체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해야 하지만 가스인프라 그리고 가스기술 및 비즈니스 운용 경험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평이 나 있다. 글로벌 가스비즈니스 시장에서 ‘가스한국 파트너십’을 통하여 사업권을 확보하고 인프라 구축 및 가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LNG는 수입하되 LNG 산업은 수출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석유를 전적으로 수입하지만, 석유화학산업을 수출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하여 한국가스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면 앞으로 펼쳐질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세계적 신에너지 수요에 부응하여 가스산업을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제시되자마자 국민적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했지만 직관적이지 않은 데다 경기북도의 상징성을 부각하기엔 부족함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쓸데없이 긴 이름도 한몫한다. 평누도에 외계어 같은 아파트 이름까지 붙여 읽으려면 30자가 훌쩍 넘는다.

이념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평화누리가 경기 북부 일대 평화통일 운동단체로 남북교류활동, 청소년 평화통일교육 등 활동을 주로 하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SNS상에는 평화누리가 통일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라며 연관성을 강하게 의심하는 게시물도 올라오기도 했다. 한 시민은 경기도민정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름부터가 이념주의에 찌든 종북팔이 명칭이며, 이는 시대에 역행한다. 코미디 방송에서나 풍자될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다”며 “지역 분리 정책을 즉각 멈춰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6일 오전 10시 기준 4만3107명이 참여했다.

순우리말이 치트키는 아니다. 애초 누리란 온 세상에 뜻을 펼치라는 뜻이다. 우주발사체나 선박 등 미지의 영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의미에서

노트북 너머

이동욱  
산업부 기자



적합한 이름인 셈이다. 하지만 공공누리제도, 누리집, 누리과정 등 온갖 곳에 쓰이면서도 직관적이지 않은 탓에 별도 설명을 필요로 한다. 행정력 낭비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군사분계선이 있는 경기 북부는 남북 분단의 상징이다.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13개 상비 전방사단 중 7개가 경기도의 군사분계선 인근에 집중돼 있다. 일대 사격훈련장은 포성으로 소음, 먼지가 날 날이 없을 만큼 군사적 긴장감이 감돈다. 경기 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과연 그럴듯한 이름일까? 이들은 오랜 기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 균형발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군사지역 및 그린벨트로 묶인 탓에 성장동력을 잃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규제를 개선하고 성장동력을 구상해 주민들에게 잃어버린 80년을 돌려줄 청사진을 제시해보는 것이 먼저일 듯싶다. toto@

이투데이, 말투데이

☆ 엘버트 허버드 명언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어차피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젊은 시절 세일즈맨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만족하지 않고 출판사를 설립한 미국 출판 경영자이자 에세이스트. 스페인과 미국이 벌인 전쟁 일화를 소재로 한 에세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자신이 발행하던 잡지인 ‘필리스틴’에 소개해 경제공황에 빠져 있던 미국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떠났다. 1856~1915.

☆ 고사성어 / 석경수마(石慶數馬)

한(漢)나라 석씨(石氏)의 가정이 엄격해 석경(石慶)은 매사에 근신했다. 훗날 제나라 재상이 된

그가 황제의 수레를 몰고 외출할 때 황상이 “이 수레는 말 몇 마리가 끌고 있냐?”고 묻자 그는 채찍으로 다 세어본 후에야 손을 들고 “여섯 마리입니다”라고 고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 출전 사기(史記) 단석군전(萬石君傳).

☆ 시사상식 / OKR(Objective and Key Results)

인텔에서 시작해 구글을 거쳐 실리콘밸리 전체로 확대된 성과관리 기법으로, 조직적 차원에서 목표(objective)를 설정하고, 결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목표 설정 프레임워크다. 앤드루 그로브 전 인텔 회장 겸 CEO가 처음 고안했다. 인텔은 종전까지 1년의 성과관리 주기를 갖고 있던 타 기업의 방식에서 벗어나 3개월마다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것이 성과 개선으로 이어졌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 'K-제약바이오' 성장 더하기

"250억 달러 vs 227억 달러."

'250억 달러'는 지난해 전 세계 의약품 시장 매출 1위에 오른 머크(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2023년 글로벌 매출이다. '227억 달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제시한 지난해 대한민국 의약품시장 규모다. 한국바이오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자료를 보면 2022년 키트루다의 전 세계 매출은 209억 달러였고, 한국의 2022년 의약품 시장 규모는 218억 달러였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 한 품목의 1년 치 성장폭이 한국의 의약품시장 규모 성장 폭을 앞지른 셈이다.

단순 비교는 의미도 없고, 비교 대상도 아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신약개발과 기술이전 등 경쟁력을 뽐내고 있는 K-제약바이오의 성과를 폄하하는 것도, 우리의 현재 위치를 부끄러워 하자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국가이자,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인정하는 첨단 의약품 생산설비와 임상시험 인프라를 구축한 나라다. 종근당, 유한양행, 한미약품, LG화학, 알테오젠 등 다수 기업이 기술이전 성과를 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 자리매김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백신 개발기업으로 도약 중이다. 이외에도 많은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해 K-제약바이오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아쉬운 건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없다는 점이다. 많은 기업이 대규모 연구개발(R&D) 비용을 쏟아부으며 신약개발에 몰두하지만 한계가 있다. 신약후보 물질 탐색·발굴, 임상시험, 우수 인력 확보, 첨단 생산시스템 구축, 해외 규제 당국 인허가, 인공지능(AI) 신약개발 등 모든 것을 개별 기업만의 힘으로 할 수는 없다.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인 산업 육성책이 절실하다. 정부도 지난해 '첨단바이오 전략' 발표를 통해 첨단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맞물리며

### 데스크 서약

송병기  
헬스케어부장



여전히 쉽지 않다. 지난해 바이오헬스케어 연구개발비는 늘었지만, 정부 지원은 줄었다. 한국 바이오협회 '2023년 상장 바이오헬스케어기업 연구개발비 현황'을 보면 의약품분야의 연구개발비는 3조383억 원이었다. 이 중 보조금은 660억 원으로 전체의 2.2%였다. 2022년과 비교해 전체 의약품 연구개발비 2조9130억 원보다 4.3% 늘었지만, 보조금은 2022년 905억 원보다 27.1%나 감소했다.

투자는 지난해보다 더욱 위축됐다. 벤처캐피탈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의료분야 신규 투자금액은 2021년 1조6770억 원, 2022년 1조1058억 원, 2023년 8844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절반가량 줄었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선

여전히 아쉬움을 토로한다. "오�히려 연구개발비가 줄었다", "더욱 과감하고 빠르게 지원해야 한다",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이다.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의지는 확신했지만 정책 집행이나 실행면에서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규제 혁신과 산업 육성·지원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긍정적 사례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2년간 규제개혁 1.0, 2.0, 3.0 추진을 통해, 산업계와 일반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규제 혁신과 산업 육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K-제약바이오 성장 더하기에 정답은 없다. 정부가 업계 목소리에 귀를 열고 더욱 과감한 투자와 빠른 정책 실행으로 글로벌 블록버스터 결실을 앞당겨주길 바란다. songbk@

### 글로벌시장서 위상 높이고 있지만 블록버스터 의약품 없이 답보상태 과감한 투자등 산업육성책 절실해

## 노무, 특!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최근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불과 몇 년 사이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4분기 기준 일반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수는 24만7191명 달하고, 그중 19만9269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E-9) 수가 늘어나는 만큼 노무 이슈도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체결을 강제하고 있으며,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내국인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시급제를 적용하거나 가산수당 등을 산정하는 경우 회사의 급여 계산 방식(주휴일, 일주일의 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만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였다더라도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산출하고 출국만기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E-9)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장 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쿼터를 12만 명에서 16만5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책을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도 좋지만, 뒤따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쿼터를 12만 명에서 16만5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책을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도 좋지만, 뒤따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공인노무사

### 사설

## 전력망 확충 없이 첨단산업 미래 있겠나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21대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갔다고 한다. 어제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지난주까지 관련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해 21대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에 반하는 입법 횡포다.

특별법안은 전국 곳곳에서 지역민 등으로 지체되는 송전선로 건설을 촉진할 묘방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가동하는 골자의 법안을 확정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력망확충위원회를 만들어 입지 선정과 갈등 조정, 맞춤형 보상 등에 적극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평균 13년 걸리는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30% 줄인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송전선로 건설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기간이 줄면 각종 비용이 줄어들고 관련 경쟁력은 높아진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도 같은 리듬을 타게 마련이다. 국가 기간전력망이 성공적으로 확충되면 덩달아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꿈은 물거품에 그치게 됐다.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것은 입법부 빼놓고는 다 잘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최대 전력은 처음으로 100GW(기가와트)를 넘었다. 2051년에는 두 배가 넘는 202GW로 치솟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전력망 건설은 쉽지 않다. 영호남은 물론이고, 강원 충청권에서도 산업 수요에 대기 위한 발전량은 급증하는데 송배전망 건설은 지체돼 적자에 빠진 민간 발전회사들이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만 TSMC의 일본 구마모토 공장 건설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TSMC가 착공에 들어간 것이 2022년 4월인데 준공이 된 것은 2024년 2월이다. 일본 정부를 비롯한 전 사회가 반도체 공장 완공을 착공 1년 10개월 만에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도왔다. 전력망 문제도 처리됐다. 국내에서도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력망만 봐도 어렵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하고, 전력망확충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국회는 들은 척만 척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운이 달린 미래 성장동력이 격정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된다. 삼성전자는 2026년부터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건설을 시작한다. 문제는 수도권 사용 전력의 4분의 1인 10GW 이상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의 전력망으론 뒷감당이 어렵다.

주요국들은 정부가 전력망 구축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했다. 독일은 10여 년 전에 특례법을 만들어 법적 분쟁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상을 강화했다. 미국은 2021년 인프라법을 통해 정부의 강제 승인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전력망이 워낙 중요하나다들 이런 것이다. 왜 우리만 다른가. 왜 송전선 위치 선정에 6년이 걸리고, 반도체 공장 건설엔 '빨라야 8년' 인가. 우리 첨단산업에 과연 미래가 있나. 정치권은 답해야 한다.

## 뻔하지 않아야 할 '對국민 소통'

### 마감 후

김동호  
정치경제부 차장



4·10 총선 결과가 확정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첫 반응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였다. 총선 참패와 싸늘한 민심은 대통령실의 변화로 이어졌고, 8번 고사했던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급기야 먼저 손을 내밀어 영수회담을 성사시켰다. 9일에는 대국민 소통에 나선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세, 2주 연속 30%대 초반에 머무는 무거운 상황에서 이뤄지는 소통이다. 지지를 정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게 이번 기자회견이 지지율을 밀어올릴 기회일 수밖에 없다.

### 2년만의 기자회견... 암초도 많아

하지만 현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물가 등 민생경제 문제를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민정수석실 신설, 두 달째 답보상태인 의료개혁 등 산적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정국 뇌관으로 부상한 정치권 최대 현안이다. 영수회담으로 이룬 협치의 물꼬가 지난 2일 사흘 만에 산산조각났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채상병 특검 처리 90분 뒤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 '일방적인 입법 폭주', '엄중 대응' 같은 날 선 단어와 불편한 감정을 심없이 쏟아냈다.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다시 한 번 시사하는 데 대한 대통령실의 부담감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 수용 여부를 '총선 민심 수용의 바로미터'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속적인 맹공이 이어지면 쇠신이 최대 과제인 윤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서 채상병 문제를 어떤 논리와 설득으로 풀어나갈지 초미의 관심

사인 이유다.

영수회담 당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 문제도 이번엔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7일 KBS 특별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탈하게 대하는 건 참 어렵다"며 해당 사건을 '공작'으로 봤다. 관련 영상이 지난해 11월 공개된 이후 윤 대통령의 첫 입장 표명이었다. 하지만 이번 영수회담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언급했음에도 윤 대통령의 관련 대답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 입장에서 의혹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 '불통' 이미지 털어내는 계기 삼길

이번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 기초 설명과 앞으로 3년간의 계획을 전한 뒤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식으로 이뤄진다. 뻔한 질문보다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으로 준비하지는 게 윤 대통령의 당부다.

쇄신은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바꾼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이 진짜 새롭게 바뀌려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불통의 이미지를 확실히 털어내야 한다. 진정성과 공감대를 담고, 묵은 의문점을 하나하나 해소하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 스스로 뻔한 질문을 거부하듯, 국민들도 뻔한 대답을 거부할 것이다. sorahosi@

##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국민함께  
프로젝트



첫 번째 희망 이야기  
늘봄학교

늘봄 같은  
퇴근길

잠에서 덜 깬 아이를 재촉해  
쫓기듯 학교로 보내는 아침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에서야  
만나게 되겠지만

누구 집 딸인지 얌니 빠진 미소로  
달려와  
“엄마~ 나 안 보고 싶었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종알대는 아이와 손잡고 걷는 퇴근길이  
하루 중 제일 행복합니다

매일 미안한 엄마를  
매일 온 마음으로 껴안아주는  
나의 희망, 우리 딸

우리 행복하자, 이렇게 오래오래

더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는  
가족의 희망 곁에  
KB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 KB금융그룹 유튜브 채널에서  
박은빈이 부른 '꿈따리 사바라'를 감상해 보세요



KB  
국민함께

KB금융그룹이 함께 만드는 '돌봄 공백 없는 세상'

KB금융그룹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총 1,250억 원을 지원하여 2,256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신·증설하였고, 2027년까지 29개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B 금융그룹